

한국의 가정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연교회

'77 12월호

1977년 교회 주요일지



- 1월 7일 : 단기수련회 (4일간)
 9일 : 공동처리회
 17일 : 고등부 동기수양회 (5일간)
 19일 : 제 3 회 선교주일 노인심방
 23일 : 지도자양성부 제11기 개강
 24일 : 유치부 · 초등부 겨울어린이성경학교 (4일간)
 31일 : 유년부 겨울어린이성경학교 (4일간)
 출판위원회 신설
- 2월 15일 : 대학부 동기수양회 (4일간)
 20일 : 박용삼 집사 평신도선교사로 서독에 파송.
 21일 : 성경 특강—야고보서 (3일간)
 24일 : 영아부—겨울성경학교 (2일간)
 26일 : 중등부 동기수양회 (3일간)
 27일 : 제 2 성가대 발족
- 3월 1일 : 춘계대심방 실시
 6일 : 4부 예배 실시
 14일 : 기업인수련회
- 4월 1일 : 이성근 · 김하진 목사 김용선 · 김순애 전도사 부임
 3일 : 춘계 성례식
 8일 : 철야 기도회 시작 (매월)
 10일 : 부활주일
 17일 : 장로투표
 24일 : 성경 암송대회—야고보서
- 5월 1일 : 어린이주일
 7일 : 제 9 회 경로회
 8일 : 어버이주일
 9일 : 제 9 회 경로회
 15일 : 건축헌금 실시
 모범 어린이 · 교사 · 학부모 표창
 17일 : 장로 장립직 (김영삼)
 31일 : 기도원 공사 착공
- 6월 19일 : 총동원전도
 20일 : 제 3 회 농어촌교회교역자 초청훈련 (5일)

- 7월 3일 : 주교 실무자교육 · 성경학원 졸업식 지도자양성부 제11기 수료식
 6일 : 제 3 회 군중사병 훈련
 14일 : 농어촌지도자 초청훈련 (5일)
 17일 : 맥추절
 18일 : 대학부 · 청년부하기수양회 (5일 · 3일간)
 여성성가대 · 제 2 성가대 하기수양회 (3일간)
 25일 : 초등부 여름성경학교 (3일간)
 26일 : 중등부 하기수양회 (4일간)
- 8월 2일 : 유치부 · 유년부 여름성경학교 (4일간)
 고등부 하기수양회 (4일간)
 8일 : 농어촌전도대 파송 (5일간)
 9일 : 장로수양회 (3일간)
 16일 : 성가 지휘 · 반주자 교육
 17일 : 영아부—여름성경학교 (2일간)
 18일 : 제 1 성가대 하기수양회 (3일간)
- 9월 4일 : 교회설립24주년
 20년근속 봉직자 표창 · 성경암송대회 (요한13—16장) 영아부 2 부에배 실시
 6일 : 추계대심방 실시
 12일 : 성경학원 개강
 13일 : 김창인 목사 해외여행 (3개월간)
 27일 : 추석성묘 합동예배
- 10월 3일 : 교사합동친교회
 11일 : 김태현 강도사 목사안수
 윤영탁 · 전희문 전도사 강도사인준
 16일 : 추계성례식
 18일 : 장로취임 · 장립식 (이월철 · 지금산 · 윤명식 · 김의철 · 조선근 · 김은호 · 오태희)
 24일 : 청년부 부흥회 (4일간)
 30일 : 장로투표
- 11월 5일 : 중등부 작은음악기 밤
 12일 : 총헌도서실—도서특강
 14일 : 총헌성경학원—신혼부부교육
 20일 : 추수감사절
 26일 : 중 · 고등부—성극발표회
- 12월 4일 : 신 · 구 제직회
 11일 : 남전도회 · 산업전도회 · 권사회—총회
 18일 : 여전도회 총회
 21일 : 유 · 초등부 성탄축하음악예배
 24일 : 중 · 고등부 성탄축하음악예배
 25일 : 구주성탄 (크리스마스)
 주일학교 작부 수료
 29일 : 특별제직회
 제일 · 제이 · 대학부 성가대 성탄축하음악예배
 30일 : 주일학교 교사총회

이것은 성도들의 헌금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12월의 행사

- 4일/정기 제직회
- 9일/교회 철야기도회·구역요원 훈련
- 10일/대학부 연극발표회
- 11일/남전도회 총회·산업전도회총회·권사회 총회
남전도회 헌신예배
- 16일/구역요원 훈련
- 18일/여전도회 총회·연합고사 준비기도회·중등부
정기총회
- 19일/교육위원회 총회
- 25일/구주성탄(크리스마스)·주교 각부 수프식·해
외 복음선교회총회
- 27일/정기당회
- 29일/특별제직회
- 30일/주일학교 교사총회

12월호 차례

- <1977년 주요일지>..... 2
- <말씀>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김창인 목사..... 6
- <편집실에서>..... 4
- <이렇게 답한다> 세상만상이 진화
된다는데/이승근 목사..... 5
- <성탄동화> 예수 산타/박종구 선생..... 8
- <특강> 결혼생활을 위한 심리학적 상식
/박성수 박사.....10
- <논단> 기독교와 진화론/이승근 전도사.....14
- <청년 신앙간증> 그리스도가 나를
비추시느니라/장철환.....13
- <교사 수필 릴레이⑥> 예수 물렀다던
/신성덕.....13
- <이단종교비판⑪> 이단들에 대한 우리의
자세/윤형철 전도사.....16
- <청년 신앙수필> 이 해가 다 가는데
/한정배.....17
- <영어성경 안내> 영어성경의 바른 선택
/편집부.....18
- <도서정보>.....18
- <1200자 칼럼> 절대사랑③/이영수 집사.....19
- <찬송가 해설②> 저 들뜬에 한밤 중에.....19
- <주간지 탐나>.....20
- <구역장 노우트②> 사무행정 교육
/박성룡 목사.....21
- <구역소식>.....21
- <해외선교 소식>.....22
- <해외성도의 편지>이민생활의 회고/김영애.....23
- <교회 뉴우스>.....24
- <기자식·표지설명>.....26
- <사진으로 보는 이모저모>.....27
- <실로암 못가에서>.....28

우리의 신조

우리는 보수적 개혁주의에 입각하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대소요리 문답을 우리의 신조로 삼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표를 둔다.

1. 말씀을 파수하는 교회가 된다.
2. 천국 일꾼을 키우는 교회가 된다.
3.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대로 민족의 복음화와 전세기 복음화를 위한 안디옥 교회가 된다.

월간 증현

김 창 인 목사 라디오 방송 설교 안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음악을 타고 가는 복음—

이 복음의 외침을
가족과 이웃과 함께
들으며 은혜 받으십시오

안세아송파(1570kHz)

매주 월요일 오후 8시 45분부터

매주일 저녁 7시 15분부터

1977년이 끝나 가고 있습니다

■ 큰 기대와 결심으로 시작했던 1977년이 끝나 가고 있습니다.

어릴 때 느껴던 신기하고 설레이고 흥던 크리스마스를 마지막으로 1977년이 끝나 가고 있습니다.

희오와 실망, 기쁨과 감사를 쌓아 놓고 1977년을 끝나 가고 있습니다.

늘 반복되는 일상사와 쫓기는 시간 속에서 살아 온 1977년이 끝나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달이 올 때마다 우리는 추억을 반추하고 지나온 날들을 반성하곤 하며 보냅니다. 사람에 따라 굴곡이 있게 마련인 이 지난 날을 금년이 가기 전에 정리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이제 지나온 날들을 하나하나 투영해 보며 새로운 날을 맞을 준비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마침표가 있을 수 없기에 늘 앞엿것을 바라고 나갈 수 있습니다. 실패했던 일, 슬픈 일들, 또 좋았던 일들도 다 덮어두고 앞으로 오는 새날을 맞으시다.

옛것을 떨쳐버리고 새날을 기대합니다.

1977년이 끝나 가고 있습니다.

■ 무척 어려웠던 한 해였습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로서는 의미있는 해였습니다. 오랜 숙원이었던 성전건축의 부지문제가 일부 해결되었고 또한 기도원건축을 시작하여 거의 끝맺음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해외선교나 국내전도면에서도 내적인 충실을 기할 수 있었고 주일학교 교육에서도 제도적으로 점차 다져지는 해였습니다.

반면에 이런 조용한 전진 속에 그리고 성장 속에, 우리가 느끼는 것은 제도적인 보완과 운영의 효율면이 이제 적극적으로 뒤따르지 않으면 안된다는 교훈을 얻기도 했습니다.

갈수록 우리에게서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오는 해엔 올해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고 주님 앞에 충성할 것을 다짐하며 오는 날들을 기대해야 합니다.

■ 월간충현으로는 전디기 어려운 한해였습니다. 인적 자원의 부족과 시간의 부족 등으로 실무를 담당할 간사진간에도 충분한 숙의를 못한 적이 많았던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같은 부족한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큰 힘과 격려가 된 것은 지방에 계신 독자들들과 출타중인 충현의 식구, 특히 해외에 계신 충현 식구들의 참여와 열심은 저희들에게 큰 힘을 주었습니다. 늘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귀한 시간과 열심으로 월간충현을 위해 도와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편집위원장 송순일 장로님과 주간 정관일 목사님, 편집위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해외에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책망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던 해외에 계신 교우들, 지방에 있는 알지 못하는 독자들,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바쁜 가운데에서도 귀한 글을 써 주신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매년 해를 보내게 될 때마다 월간충현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문서활동」이라는 것이 결코 한 두 사람의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란 것을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주위의 힘, 늘 의식하고 그러므로 보다 나은 것을 위해 애쓰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월간충현은 어느 특정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것인 것입니다.

오는 해에도 끊임없는 관심과 협조로 돌보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내년도의 조직이 결정되었습니다. 금년보다도 더욱 보강된 편집위원과 점차로 안정되는 가운데 보다 충실한 월간충현이 될 것을 기대하여 봅니다. 끊임없는 관심과 비판·격려 등으로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이렇게 답한다 □

세상 만상이 진화된다는데...

이 성 근 목사

<부목사·출판위원회 지도>

물음/흔히 말하기를 세상의 만상이 다 진화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진화되는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진화과정의 계속되는 중 언젠가는 이 세상이 참으로 아름답고 평화로운 세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학설이 사실입니까?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답: 기독교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것이 진화가 아니고 퇴화입니다. 타락입니다. 진화론자인 제이 에이·톨슨(J.A. Thomson)박사는 그는 불신자인데 말하기를 2억년 전에 원시생물이, 1억년 전에 양서류(兩棲動物)로 진화하고, 2천만년 전에 포유동물로 진화되고, 50만년 전에 사람의 형상을 이루는 오늘날까지 진화과정을 밟아 왔다고 말합니다. 이 과학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사실을 부인하려고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학자를 더 신용하며, 성경말씀보다 학자의 말을 더 믿습니다. 그러나 학자의 말이라고 다 신용해서는 안됩니다.

불신과학자들 중에는 인류는 진화과정을 밟아 현재 상태에 이르렀다고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현재 이상으로 완전하고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신 것을 말씀하십시오. 처음에 창조하신 사람은 진화될 필요가 없도록 완전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창 1:31) 하셨습니다.

처음 사람은 그 체질로도 지금 사람보다 훨씬 우수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므로 처음 사람에 비하면 사람들이 퇴화상태에 있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① 수명(壽命)인데, 저들이 그와같이 장수하였던 것은 체질이 건강했던 증거요 체질이 건강하므로 질병도 거의 없었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나 지금은 「인생 70이 고대회」라고 그나마 70년을 다 살지 못하고 천만가지 질병은 우리의 생명을 중도에서 희생시키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② 지식면에서의 퇴화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는 정신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여간한 퇴화가 아닙니다.

③ 도덕적 타락입니다. 상고(上古)시대에는 일부 일처(一夫一妻)제도인데, 오늘날은 성적 타락이 극에 이르렀습니다.

④ 인류에도 타락입니다. 현대의 문명은 살인술(殺人術)의 발달에 불과한 것입니다. 창경에서 총

포·군함·비행기·잠수함·폭탄·독가스·유도탄·핵무기·살인광선의 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⑤ 자연계에도 타락입니다. 문명의 그림자인 공해는 자연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보는 대로 생활의 곤란, 사상의 악화, 약육강식(弱肉強食)은 모두 인생의 타락을 증거합니다.

◇ 이 성 근 목사



그러므로 모든 인생뿐 아니라 자연제도 한번 우주의 혁신을 바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피조물의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로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롬 8:19-22).

이 세상이 정의로 충만하고 화평으로 넘치게 되는 것은 진화과정이나 과학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불의와 죄악을 없애는 것이 어떤 주의(主義)나 사상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다시 보내심으로써 성취될 것입니다. 곧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불의를 곧 불의한 자, 불의한 사회, 불의한 국가를 다 파멸하신 후에야 정의와 평화의 왕국은 건설됩니다. 이것은 만민(萬人)이 바라는 천국입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계 22:20).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생과 만물을 헛되게 멸망시켜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므로 믿는 자에게는 인생이 타락되기 전 원시원상(原始元狀)보다 더욱 새롭고 완전한 상태로 회복하실 그 날을 소망하면서 헛된 학설에 농락당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성경/마태복음 9:9-13

김 창 인 목사

<분교회 담회장>

지혜로운 사람은 집을 떠나 출장을 가게 되면 그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물며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천국을 떠나시어 죄물과 죄가 가득찬 세상에 오실 때에 어찌 목적이 없으셨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 그 목적을 알고 다가오는 성탄절을 지키는 것이 성도의 도리인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인생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오셨읍니다. 인생들에게는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해결을 못하는 가지각색의 적고 큰 문제들이 한없이 많읍니다.

첫째, 근심문제를 해결해 주시려 오셨읍니다

어린 자식의 문제는 부모님이 해결하여 주고, 환자의 근심은 의사가 해결하여 줍니다. 그런데 부모님도 의사도 해결 못하여 주는 근심되는 일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세상에 믿는 일에 대하여 말해 봅시다. 어린애는 부모님을 믿고 살니다. 종읍니다. 젊은이들은 자기의 힘을 믿읍니다. 「내가 지식이 있고, 건강하고, 기술도 있고, 권세가 광망하고, 내가 사업을 잘하고」 하면서 자신을 믿고 뽐넵니다. 연세가 높으신 분은 훌륭한 아들·딸·사위·자손을 믿고서는 「내가 그래도 겸손증장의 약버지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조심 없이 떠들거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을 믿는 어린애들의 문제가 전부 해결되면 좋는데, 부모님의 권세와 실력이 어린애들의 문제를 다 해결하지 못합니다. 젊은이들이 자기의 기술과 무엇 무엇을 믿는다고 뽐넵어도 자기의 문제를 다 해결하지 못합니다. 나이 많으신 분이 지식을 믿고 호언장담하는 부모님, 훌륭하고 복 받으신 분이지만 자기의 문제해결이 그것으로 될 수는 없읍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들에게는 근심이 꼭 차 버렸읍니다.

근심이 무엇입니까? 문제해결을 못해서 생기는 것이 근심입니다.

이 근심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셨읍니다. 예수님만이 해결해 주십니다. 어린애들이 부모를 믿거나 청장년의 자식의 힘을 믿거나 노부모가 자식들을 믿는 일은 불완전하고 도리어 교만하여지고 경솔하여져서 더 큰 근심을 빚어 놓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무슨 힘으로도 해결 못하는 이 큰 근심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려 오셨읍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쌓여 있는 적고 큰 근심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려고 오셨읍니다. 근심은 기도로, 환술은 찬

미로 바꾸어 주시려고 세상에 오셨읍니다.

둘째, 질병문제를 해결해 주시려 오셨읍니다

오늘날 가장 골치아픈 병은 무엇입니까? 폐결핵이 아니고 이제는 암이 골치아픈 병입니다. 이 암은 너무나 가지각색으로 많읍니다. 암의 원인에 대하여서도 별 확설이 많읍니다. 이 모든 안타까운 병을 제약회사에서도, 의학 박사님이 경연하는 병원에서든 해결을 못하는게 너무 많읍니다.

단일 제약회사에서 내는 광고를 그대로만 믿고 또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세상의 병은 하나도 없고 제약회사는 망했을 것입니다. 병이 나았는데 누가 약을 먹겠읍니까? 그런데 미안한 말로 제약회사가 만든 약이 병을 고치면서 한편으로 병을 만들어 내는 것 같습니다. 병이 더 많아지는 것을 보니까 답답합니다. 이러나 저러나 이 질병문제는 인간이 해결을 다 못합니다.

요새 의학박사님들이 병의 원인을 말합니다. 「병은 공기, 습열 등에 음식을 먹을 때에 균이 들어가서 병이 된다, 또 병은 너무 지나치게 피곤하게 일을 해서 건강이 견디지 못해 젊어질 때 병이 된다, 또 병은 음식을 지나치게 먹어서 병이 된다, 부모님에게 유전된다, 여러 설이 있읍니다. 이것어 다 원인이지요.

그러나 요새 나오는 확설을 보면 신경·정신문제로 오는 병이 6할이 넘는다는 확설도 있읍니다. 모든 병은 근심 때문에 모든 병은 놀라서, 쇼크를 받아서, 슬퍼서, 이런 신경문제 때문에 병이 생긴다는 말을 요새는 하게 됩니다.

이 말에 대한 대답입니다. 우리 마음의 쇼크·신경질·피로 등은 예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읍니다. 과학적으로도 병을 믿음으로 고친다는 말이 증명되고도 남는 때가 왔읍니다.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올 때에, 우리의 질서함의 병은 술금술금 도망가게 됩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 모시고 세로운 사람의 물 때에 질병문제가 해결됩니다.

셋째, 죄악문제를 해결해 주시려 오셨읍니다

이 죄는 범하기 전에는 마귀가 유혹하기를 ①죄를 저으면 이가 나고 재미가 있다고 합니다. ②아무게 장로도 아무게 권사도 다 하니까 하라고 합니다. ③아무도 모르니까 죄를 범하라고 합니다. 이러면서 마귀는 욕심을 흥동시켜 죄를 범하도록 만들어 놓읍니다.

죄를 범한 다음에는 죄인이라고 낙인을 찍고 낙심을 서키는 것이 악마의 장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범하자고 하는 악마의 유혹을 거절하게끔 강해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악의 유혹을 사전에 막아버리고, 범한 죄는 회개할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내 죄를 씻으면 죄악의 형벌을 해결받아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그 다음에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어 죄악에 습관되었던 것까지 때어 버리게 됩니다.

죄를 한번 짓고 두번 짓고 하다 보면 그 죄가 습관이 되는데 성령님이 오시면 습관되었던 죄의 뿌리까지 뽑아져 나갑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죄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오셨을니다.

네째, 죽음문제를 해결해 주시러 오셨을니다

며칠 전이지요. 마을에 갑작스러운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저는 아무개라고 하는 여성도입니다. 제 남편은 44세 되는 젊은이였었는데 심한 병이 들어서 백악이 무효로 점점 심해졌습니다. 그래 이 병으로 인하여 세상을 떠날 사경에 이를 때에, 그는 마음에 반민과 공포에 포로가 되어 있었을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9월 9일 새벽, 목사님께서 방송을 통하여 주시는 설교의 말씀, 예수님은 우리의 변호사가 되신다는 말씀을 들은 내 남편은 죽음에 대한 공포가 아주 없어졌습니다.

「내가 범한 어떤 죄라도 예수님께 회개하는 시간에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변호를 해주시므로 다 용서를 받는다. 내가 이제 세상을 떠나면 예수님은 천국문에 마중나와 주신다」는 설교의 말씀을 듣고는 가난하여 고생하던 셋집에서 부잣집으로 이사하는 사람처럼 그는 기쁨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9월 9일 새벽의 설교하신 분이 누군지 몰라서 나의 남편의 장례식을 마친 후에 두번이나 방송국에 문의편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회답이 오기를, 그 설교는 김창인 목사님이 하셨는데, 그 설교의 본문은 요한일서 2장 1-6절까지이며 그분은 충청교회에 계시고 전화번호가 몇번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 이제 전화를 드리는데, 제가 꼭 알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날에 설교하신 본문과 내용, 내 남편이 기쁨으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끼친 고마운 설교의 내용을 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전화를 왔습니다.

나는 이 전화를 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못난 것을 통해서 사망의 문 앞에서 의로와졌고, 사망의 문앞에서 집을 집어먹고, 사망의 문 앞에서 세상을 저주하고 낙심

하던 그가 부족한 종의 설교를 통해서 기쁨과 소망을 얻고 천국에 가는 증거를 남겼습니다” 너무 고마와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여, 그 의로운 죽음의 문턱, 남편도 아내도 아파도 엄마도 갈 수 없는 그 죽음의 문턱, 그 무서운 죽음의 문턱, 그 괴로운 죽음의 문턱 그 절망의 문턱에서 누가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니까? 예수님 한분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들에게 이 세상에서는 천국을 소망한 자로서 강하고 담대하게, 겸손하고 지혜있게, 진실하고 힘있게 일하게 하시면서 영육간에 천국의 은혜와 행복을 누리게 하시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그날에는 천국의 영생복락을 누리게 하시려고 이 세상까지 찾아와 주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그저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하므로 우리들은 있는 정성을 다하여 영광을 돌리고 여생은 주 안에서 마르 살다가 거룩하게 죽어서 천국에 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근심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우리의 질병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우리의 죄악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려고 오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늠름하게 살게 하시려고, 세상 떠나는 날에 하늘나라에 영접해 주시려고 오셨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절제조각처럼 때묻은 나를 살리시려고 그 놀라우신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미친한 땅에 찾아 오셨을 것입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앞에서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은 성탄카아드나 보내는 것으로, 선물이나 보내는 것으로, 그저 덤비는 크리스마스처럼 지키는 것보다 주님께서 무엇 때문에 오셨나를 알고 예수님을 마음 속에 임금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정말 인간의 죄악의 주소를 떠나서 예수님의 품으로 인격의 주소를 옮기시렵니까? 찾아 오신 예수님을 모시고 대접하고, 제림하신 예수님을 마중나갈 준비를 갖추시면서 이번 성탄절을 지키십시오.

근심·질병·죄악·죽음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까? 나 혼자 부들켜안고 발버둥치며 한숨쉬지 말고 당장 무릎을 꿇고 회개함으로써 기어코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이리하여 주님의 위로와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을 땅에서부터 받아 누리시다가 세상 떠나실 때에는 예수님께서 마중나와 주시므로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꾸 산타

박 중 구

<동화작가·시인>

“야, 지팡이다. 은지팡이야 은지팡이!”

“이것봐 형, 오색 방울이야!”

“야, 이전 금종이고, 이전 은별이고 이전...”

“포인세티아가 한 송이 두 송이 세 송이...”

“예쁜 카아드가 몇장이야!”

“에게게, 이전 왜 이 모양이지? 오후 이 산타클로스 좀 봐, 애꾸눈이야 애꾸!”

“하하, 정말 애꾸 산타구나!”

“에이 보기 싫다, 버려라.”

상자 속에서 나온 애꾸 산타는 휴지통에 버려졌습니다.

아들은 거실에 마련된 전나무에 금종, 은지팡이 큰 별, 작은 별, 포인세티아와 예쁜 카아드를 매달았습니다. 금박지 은박지를 길게 드리운 줄에 색색의 방울들을 매달기도 했습니다. 깜박이 꼬마 전등들을 수 십개 매달아 놓자 꼬마 전등들은 깜박깜박하고 숨바꼭질을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전나무에 매달린 것들이 저마다 뽐내고 있었습니다.

초저녁에는 ‘정글벌’ 노래가 여기 저기서 벽을 비벼대는 것 같더니만 차츰 ‘노엘 노엘’ 하는 느린 걸음으로 골목을 빠져나가기로 하고, 더러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의 가늘고 연약한 실요라기가 되어 마른 잔디에 가라앉기도 했습니다.

부엌집 거실의 전나무에는 꼬마 전등들이 계속해서 숨바꼭질을 하고 있습니다. 빨강과 노랑이 반짝하고 켜지면 파랑과 보라는 깜짝같이 숨어버립니다. 파랑과 보라가 확 피어나면 빨강과 노랑은 새빨리 사라집니다. 휴지통에 버려진 애꾸 산타는 아까부터 꼬마 전등들과 숨바꼭질을 하고 있습니다. 빨강 노랑이 반짝하면 감겼던 왼쪽 눈이 번쩍 떠지고 파랑 보라가 반짝하면 다시 애꾸가 되고.....

갑자기 애꾸 산타는 털보 아저씨가 미워졌습니다. 장난감 공장의 털보 아저씨 말입니다. 왼쪽 눈이 애꾸인 그 털보 아저씨가 자기를 애꾸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부엌집에서 버림을 받은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분인가요? 장난감 가게에서 다녔해도 넓게 진열장 구석에서 남의 놀림판 받아 왔었지요. 어쩌다 오늘 많이 사는 상자 속에 덩으로 얹혀 왔지만 예상대로 버림을 받아 휴지통 신세가 되었지 뭐니까.

그렇지만 털보 아저씨를 원망해도 이제 소용이 없습니다. 애꾸 산타를 만들어 놓은 다음 날 털보 아저씨는 차거운 공장에서 눈을 감았으니깐요. 털보 아저씨는 애꾸 산타가 베고 있는 자루속에 노랑고 빛나는 구슬 같은 것을 넣어 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꾸 산타클로스여, 당신은 이 털보가 못한 일을 해 주시오. 이 털보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을 하고 싶었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에게 그 자루를 풀어 주시오. 내가 평생 모은 것이요.” 한 쪽 눈을 감고 똑바로 정확히 보아야 찾을 수 있오. 그분은 애꾸인 당신도 사랑해 줄 것이오. 애꾸 산타는 어깨에 멘 자루를 흔들며 보았습니다. 있었습니다. 그 때 털보 아저씨가 넣어 주던 그 노오란 구슬이 자루 속에서 쟁쟁한 소리를 냈습니다.

애꾸 산타는 거실 안쪽에서 서서히 걸어오는 희미한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파랑 보라가 켜지면 저벅저벅 걸어오다가 빨강 노랑이 켜지면 다시 물러나곤 하는 희미한 그림자. 눈을 부비고 다시 보았습니다.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고 벽시계였습니다. 추 흔들리는 소리를 발소리로 착각했습니다. 짧은 바늘이 2자에, 긴 바늘이 10자에 있어서 눈썰임 줄 알았습니다. 눈동자 같은 데를 자세히 보니 24라는 숫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 지났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랴>

찬송소리가 이웃 골목에서 새어 나오더니 간간히 들리는 차소리 속에 묻혀 들어갔습니다.

드르륵 문을 열고 나오는 건 식모인 순이었습니다. 순이 손에는 텔레비전만큼한 가방이 들려 있었습다. 순이는 가방을 거실에 놓더니 휴지통을 집어들고 쓰레기통으로 나갔습니다. 쿵쿵 쓰레기통에 휴지를 쓴다 말고 애꾸 산타를 집어들었습니다. 순이는 애꾸 산타를 들고 와서 그 큰 가방에 쑤셔넣었습니다.

“아줌마, 저 차타러 나가요.”

“그래, 오래 있지 말고 빨랑 와야 한다.”

“알았어요.”

일년만에 고향 집에 가는 순이는 버스가 빨리 달리는게 굉장히 신났습니다.

버스가 두 시간정도 기분 좋게 달리더니 잠시 머물렀습니다. 순이는 여기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찬바람을 맞으며 반시간 정도 기다려서 버스를 탔습니다. 이 버스로 한 시간 정도 산골로 들어가야 합니다. 길은 작년처럼 여전히 나빴습니다. 버스는 덩커덩커덩 먼지를 일구면서 달렸습니다.

순이는 버스에서 내려서도 한참을 걸어 들어 갔습니다. 산 골짜기를 등지고 조가집들이 실존 좀 추위에 폭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새마을 운동은 아직도 순이네 마을까지 오지않았다 봅니다.

“서울 누나 왔대야!”
오학년인 석이는 얼른 마당으로 뛰어내려 누나 가방을 받아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이걸 석이 선물이다.”

“어? 왼쪽 눈을 왜 감았어?”

“응, 아직 잠이 덜 깬다봐.”

“야! 마침 잘됐다. 우리 교회 목사님이 성교회에 보낼 선물을 한 가지씩 가져오라고 했는데 이 산타클로스를 가져가면 되겠다.”

“엄마, 우리 동네도 예배당을 지었어?”
순이의 물음에 엄마가 대답했습니다.

“깃깃 뿔 지었니. 가을에 흙 벽돌을 만들어서 벽을 쌓고 지붕은 역세로 엮어서 덮었다.”

“우리 처지에 그만하면 과분한 예배당이지.”

옆에서 아빠가 말씀하셨습니다.

“뭐가 과분하다는 거예요. 당바닥에 명석을 깔고 예배드리는데 주께 성교회 김 전도사에게 선물을 보낸다. 그 교회 위해 헌금을 한다는등 야단법석이니 참...”

“당신은 모든 소리 그만해 뒀요.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한 김 전도사가 섬마을에 가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그곳 교인들을 위해서 헌금을 보내자는 게 얼마나 지당한 일이지.”

“그렇지만 우리 예배당 꼴을 좀 봐요. 전녀 마을 처럼 세면으로 짓지도 못하고 거지꼴인데 우선 우리 발등에 불을 끄고 남을 도와야지요.”

순이는 엄마 아빠의 어느 편을 들어야 옳은지 얼른 판단이 오지 않았습니다.

석이는 애꾸 산타를 들고 예배당으로 달려왔습니다. 어린이 주일학교에는 벌써 열명도 넘게 와 있었습니다.

석이는 애꾸 산타를 선생님께 내었습니다. 선생님이 애꾸 산타를 받아들고 이리 저리 살펴 보시더니 석이를 쳐다보곤 성큼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큰 상자에 넣으셨습니다.

상자 속에 들어온 애꾸 산타는 상자 속을 살펴봤습니다. 고구마도 있고 조그만 세타와 양말들도 있었습니다. 모두 새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조금 후 목사님이 들어오셔서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목사님 설교는 짧았지만 뜨거운 것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오신 날입니다.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기쁜 날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합시다.”

상자 속의 애꾸 산타는 문득 털보 아저씨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그렇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에게 이 자루 속의 구슬을 들려야지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이 교회에서는 설마를 김 전도사 교회에 보낸다고 합니다. 그러니 조금더 기다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날 밤 애꾸 산타는 선물상자 속에서 세타를 덮고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꿈속에서 여행을 떠났습니다.

애꾸 산타는 털보자를 길속이 둘러쌌습니다. 털구두를 신고는 털장갑을 끼었습니다. 구슬 자루를 왼쪽 어깨에 메고는 세타리의 사슴이 끄는 썰매에 올랐습니다.

썰매는 넓고 가파른 눈 밭을 하얀 눈가루를 날리며 신나게 달려서 어느 큰 교회당 모퉁이에 다다랐습니다. 교회당 안을 들여다 봐야겠는데, 담이 너무 높습니다. 빙 돌아가다 경문을 발견했습니다. 큰 문은 닫혀있고 켜고만 샛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창문 쪽에서 교회당 안을 들여다 봤습니다. 젊은이들이 모여서 기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애꾸 산타는 한 쪽 눈으로 찬찬히 젊은이들의 표정을 읽었습니다. 모두들 기뻐하고 있었으나 그 기쁨을 전하려는 태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기들만이 기뻐하는 그런 축제 분위기만 보였습니다.

애꾸 산타는 다시 썰매에 올랐습니다.

썰매는 금방 울타리도 없는 허술한 교회당 옆에 닿았습니다. 애꾸 산타는 글썽을 찾았습니다. 아무리 봐도 글썽도 없고 종각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침 우리가 한 장 깨어져 나간 창문틀이 보였습니다. 발끝을 세우고 들여다 보았습니다. 열 대여섯 명의 어린 교인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애꾸 산타는 귀를 바짝 기울였습니다.

“가난한 저희를 도와 주소서. 하늘 문을 열고 우리들의 창고를 채워 주소서. 풍성한 물질을 허락해 주셔서 재물의 축복을 누리게 하소서.”

애꾸 산타는 구슬자루를 고쳐 잡고 썰매에 올랐습니다.

썰매가 도십지를 빠져나가자 넓은 눈밭이 펼쳐졌습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에게 그 자루를,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에게 그 자루를...>

애꾸 산타는 털보 아저씨의 말이 생각나서 자꾸 중얼거렸습니다.

<새벽이 되기 전에 찾아야 할때...>

사슴들은 신나게 눈밭을 달렸습니다.

애꾸 산타는 하얀 수염을 찬 바람에 휘날리면서 왼쪽어깨의 구슬 자루를 더욱 꼬옥 잡았습니다.

결혼생활을 위한 심리학적 상식

박 성 수 박사

결혼생활이란 따지고 보면 인간생활의 가장 중요한 단면이다. 얼마 전에 백성통 목사님을 통해 중요한 가르침을 받았다. 그것은 기독교에서는 결혼의 세가지 큰 목적이 있다고 하면서, 첫째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고 둘째는 자녀를 낳기 위해서며 세째는 생활을 풍부하고 즐겁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었다.

우리가 흔히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할 때 “결혼생활을 잘 하자”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자”는 이야기들을 한다. 이것은 누구나 다 행복한 결혼생활을하기를 원하고 또 행복해지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을 말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흔히 하는 이야기가 있다. 첫째 세속에서 돌아가는 말에 의하면 결혼생활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애정이 있어야 된다, 서로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한다. 애정이 없는 결혼이란 있을 수 없다고들 한다.

둘째는 성격의 일치 내지 조화를 이야기한다. 어느 정도 성격이 맞아야 살 수 있지 성격이 안맞으면 결혼생활에 곤란을 가져온다고 한다.

세째는 경제적인 측면도 행복한 결혼생활을 위해서 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외에 사회적인 위치, 가정의 배경들도 중요시되고 또는 어느 학교를 어떻게 나왔느냐도 사람에 따라서는 매우 중요하게 이야기되기도 한다.

그러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로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또 다른 요인이 하나는 신앙의 일치인 것 같다. 신앙의 일치란 상당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 같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가능하면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고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끼리 결혼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또한 우리가 결혼해서 지켜야 할 것을 여러가지 이야기한다. 성경에 보면, 결혼한 사람들에게 어떤 의무가 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에베소서 5장18-34절을 보면, 아내가 어떻게 하여야 하고 남편이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와 있다. 즉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 또 둘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우리들이 성령충만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다.

그러면, 심리학에서는 결혼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느냐를 생각해 보기로 하자.

1. 심리학적 입장에서 본 결혼생활

심리학적 입장에서 볼 때 결혼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아내와 남편 사이에 일어나는 여러가지 행동의 총합적

인 것이다. 즉 남편과 아내 사이에 일어나는 여러가지 생각·감정·행동들이 다 합쳐진 것을 결혼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남편에게 관련된 사람 또 아내에게 관련된 사람, 가정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행동들 또는 가정 밖에서 관련된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행동들을 다 합쳐서 결혼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

이러한 심리학적 측면에서 결혼 생활이라는 것은

첫째는 자아의 표현이다. 즉 나의 표현이다.

내가 어떤 결혼생활을 하고 있고 또 내가 보낸 결혼생활이 어떤 것이었으며, 얼마나 성공적인 결혼생활을 하고 있느냐 등이 나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다. 즉 나의 인격, 내가 가진 신앙,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내가 가진 거의 모든 것이 결혼생활에 나타나는 것이다. 흔히 생각하기를 결혼생활 자체가 인격을 결정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의 생각으로는 결혼생활 그 자체가 인격을 결정할 수도 있지만은 내 인격이 어떠한 것이며, 내 신앙과 내 가치관은 어떠한 것이 근본적으로 결혼생활의 질과 결혼생활의 내용을 결정한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결혼생활을 잘못하고 있을 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아내가 뭔가 잘못한다, 또는 자기 남편이 잘못한다고 상대방을 원망할 가능성이 있고 나무랄 가능성이 있지만은 사실 따지고 보면 내 인격, 내 신앙이 잘못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로는 나의 인격의 표현인 동시에 배우자와 나의 둘 둘관계에 대한 표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나라는 인격체와 배우자가 만나서 두 사람 사이에 어떤 독특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두 사람의 만남은 독특한 관계가 이루어지기 마련인데 두사람이 다른 성격, 다른 인격,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둘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인간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두 사람 사이에서만 발생될 수 있는 독특한 관계가 결혼생활에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다.

세째로 나와 배우자의 가족들이 나와 나의 배우자와 어떤 관계에 있느냐를 나타내는 것이다.

흔히들 사람이 커서 내가 자란 가정의 영향을 받았는가 하는데 자기 가정에서 경험한 것 이상을 초월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물론 그것을 초월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을 초월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자기들의 가정에서 본 여러가지 행동·생각·신앙 등을 아는 중, 모르는 중에 가족들로부터 배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시가와 처가의 여러 사람들이

결혼한 부부들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하는 것이 결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네째로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적 사회적 배경을 표현하는 것이다.

우리들이 어떤 결혼생활을 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들 마음대로 되는 것같이 생각되고 또 내가 잘나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아무리 훌륭한 창조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들의 결혼생활은 우리 문화·사회·교회에서 정해진 범위에서 그대로 살기 마련인 것이다. 즉 우리들이 어떤 형태의 결혼생활을 하느냐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와같이 생각해 볼 때에 결혼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과 인간관계의 표현인 것이다. 그러니까 나와 나의 아내, 나와 나의 남편, 나와 나의 가족, 친구, 내가 사귀고 있는 모든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하는 것에 따라 우리들의 결혼생활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선 정말 훌륭한 결혼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들과 훌륭한 인간관계를 맺을 필요가 있는 것이다.

훌륭한 인간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첫째로는 자아와의 관계요, 둘째로는 부부관계요 세째로는 우리 가족, 시댁, 처가하고의 관계요 네째로는 우리 교회, 사회, 동창 등과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것을 말한다. 창조적인 인간관계,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결혼생활의 기본적인 조건이고 전제이다.

2. 창조적인 결혼생활을 위한 제언

첫째로 결혼생활의 중요한 일중 하나는 자녀를 양육하는 일이다.

최근에 심리학에서는 모성실조라는 말을 쓴다. 이것은 마치 영양실조에 걸리면 신체적으로 자라기도 어렵고 지능이 발달되지도 않고 사회적 행동도 잘 발달되기도 어려운 것과 같다. 어머니의 따뜻한 물품을 충분히 받지 못하면 그것이 영양실조에서 미치는 것과 똑같은 데에 따라서는 그것보다 심한 영향을 미친다 해서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다.

이와같은 모성실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첫째는 어린이들에게 충분한 사랑을 주어야 하며, 둘째로는 누군가가 늘 어린이 곁에 있어서 돌보아 줄 수 있어야 하며, 세째로는 밑에서 돌보아 주는 사람은 어린이와 계속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하고, 네째로는 계속적인 자극을 주어야 하는 것이다.

이처럼 애정, 지속적인 관계, 잘 돌보아 주는 것, 적절한 자극등이 결핍되면 모성실조에 걸린다. 모성실조의 증세를 다음의 예로 들어보라.

미국에서 2차대전 후, 어린이들이 비실비실대다가 죽는 어린이들이 생겼다. 조사해 보니 영양상태도 좋고 병도 없다. 원인을 찾을 수가 없다가 나중에 발견한 사실이 이처럼 죽는 어린이들의 어머니들에게 흔해져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소위 그 당시 과학적 육아법이란 것이 나와서 10시간 되면 잠자기고 나가서 야구구경하고 9시간 되면 아이를 잠재우고 파티에 나가고 하며 어린이들을 기계적으로 키우면 된다고 생각하였다. 이처럼 아이들을 소홀히 하는 과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그런 병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때에 맞추어 우유만 먹으면 살 것 같지만 그렇게 자란 아이들

<필자 소개>

- 서울대학교 사범대 졸업
- 서울대학교 대학원 문학 석사
- 미국 웨스턴 미시간대학교 대학원
- 카운슬링 전공, 교육학 박사
- 현재 한국행동과학연구원 연구교수



은 이상한 병에 걸려 죽는다는 것이다.

또 한 예는 우리나라의 경우인데, 아주 가난한 집에서 5살짜리 어린아이는 어머니가 행상을 나갈 때마다 문을 꼭 잠그고 다녔다. 1년에 늘 그런 식으로 키웠는데 1년반쯤 되어서 아이가 병이 났는데 이 어린이는 동물적인 상태로 다시 돌아가고 말았다. 그래서 대·소변을 구별도 못하는 것난아기된 것이다.

또 한 경우는, 1년 6개월이 된 어린아이가 입원했는데 이 아이는 열려도 쳐다보지도 않고 허둥만 명하니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집에는 어린아이를 돌보아 주는 사람이 일년에 11월이나 바뀐 것이다. 그것이 원인이 되어 아동정신분열증(?)이 걸린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어린아이에게 자기를 돌보아 주는 사람이 자기를 떠난다는 것, 즉 어머니의 역할을 하던 사람이 떠난다고 하는 것은 자기 어머니가 죽는 것과 똑같은 심리학적 효과를 낳는 것이다. 그러니 1년 6개월밖에 안된 어린이가 11월씩이나 자기 어머니가 죽는 것과 비슷한 심리적인 효과를 가져왔으니 얼마나 끔찍한 효과를 가져왔는지 생각해 볼 일이다.

부모와 자녀간의 좋은 인간관계는 커서도 비교적 지속되어야 한다. 국민학교와 중학교에 이를 때까지 집에서 누군가가 돌보아 주어야 한다. 꼭 부모가 아니어도 되고 할머니나 할아버지도 된다. 요즈음 심리학자 사회학자들과 이야기는 가장 이상적인 가족형태는 3세대가 한 집에서 사는 것이 제일 좋다고 한다. 또한 「두 자녀 갖기」운동인데 3자녀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한다. 3세대에 3자녀 그것이 뜻적인 면에서 가장 이상적이라고 한다.

둘째로는 시댁 또는 처가하고의 원만한 관계를 가지는 것이다.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결혼생활 중에는 동물하고 다른 점이 많이 있다. 그중의 하나가 소위 처가·시가가 항상 개입되어 있는 점이다. 이것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현상이 아니고 거의 범인류적인 것이다. 시가·처가와와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 하는 것이 결혼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결혼생활에서 아이를 키울 때 어머니는 아이의 머리가 삐뚤어진다고 얹어키울려고 얹어 놓으면 할머니가 패박르게 바로 댈어 놓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할머니하고 머스리하고의 싸움의 원인은 이처럼 매우 사소한 일에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들의 행복이니 불행이니 하는 것이 이러한 사소한 일에 많이 달려 있다고 하는 것이다.

결혼하고 나면 시가나 처가의 행동·가치·습관이 아주 다르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려는 다음가점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저분들이 어떤 말을 하려고 하거나 무엇을 요구할 때 또는 무엇인가 할 경우에 왜 그랬는가를 나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내가 이해한 것이 틀릴 수가 있다는 것이다. 아무리 눈치가 빠르고 머리가 좋다고 해도 우리들은 대부분 무슨 실수를 범한다. 우리들이 다른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 것을 확인을 안한다. 그러기에 우리들이 느낄, 그것이 어떤 것이건 간에 표현을 해보아 확인을 해보자는 것이다.

세째로 서로가 근본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다는 것에 관대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의견이나 생각이 다른 경우에 이에 대해 편협한 태도를 지니는 것은 결혼생활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 여러가지 동일한 문제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네째로 주고 받는 것을 분명히 하자는 것이다.

주는 것인지, 빌려주는 것인지, 사소한 일들에서 분명히 끊고 맺음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고 받는 것을 분명하게 하지 않는 경우가 있게 되면 시가·처가와외 관계가 될때 매우 곤란해지기 쉽다.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고 해도 그때 그때 분명히 하고 지나가야 한다.

3. 부부간의 관계를 행복하기 위한 제언

결혼생활에서 실패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이야기가 「뭔지 모르겠는데 말이 없다」고 한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말이 없다, 인격은 훌륭한데 말이 없다, 집에 들어 오면 말이 없다, 결혼생활에서 이런 경우가 적신 호가 된다.

또한 그외에 친구들과하고 어울려 놀 늦게 돌아오는 경우, 부인이 살림에 소홀하고 늘 나다닌다든가, 남편 이혼자서 낚시·등산에 미쳐 늘 나다닌다든가 교회갈으면 남편이 술·담배를 너무 심하게 한다든가 등으로 금이 가기 시작하는 경우가 있다.

첫번째 서로가 서로를 수용하라는 것이다.

여기서 수용하라는 것은 상대방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것이다. 결점이 있으면 결점 그대로, 과오를 범했으면 과오 그대로를 받아들이라는 것이다. 상대방을 수용한다는 것은 심리학적으로 깊은 의미가 있다. 즉 상대방을 수용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감정·행위·행동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그것이 모자라고 퍼스널하고 누군가 한때 좋지 않은 점이 있는 것이라도 그대로 용납하고 이를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남편·아내가 무슨 실수가 있든지 잘못이 있어도 그것을 관대한 마음으로 받아주고 용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두번째로 서로를 이해하려고 애를 쓰라는 것이다.

남편은 아내의 입장이 되어서, 아내는 남편의 입장이 되어서 이해하려고 애쓰지 않으면 안된다. 여기서 이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그 상대방 입장에서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머리 속으로만 아니라 그 사람의 감정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다.

세번째로 일치의 경험을 많이 가지라는 것이다.

부부간에 생활경험을 함께 나누고 두사람 간에 여러

가지 활동을 같이한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부부간에 서로 같은 경험을 하여 공통의 경험을 많이 가지는 것이 성공적인 결혼이 되는 것이다.

네번째로 서로가 감시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

사소한 일에 감사하는 생활이 필요하다. 크고 중요한 일에만 감사하다 보면 감사해야 할 일이 별로 없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일상생활에서 늘 일어나는 사소한 일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태도와 마음을 가지는 것이 결혼생활을 행복하게 하는 비결이다.

결국 결혼생활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을 때에 성공적으로 끌어들 수 있는 것이다. 즉 상대방을 수용하고 용서하는 기본적인 태도, 나아가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서 그 사람의 생각과 안목을 가지고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이해하려는 노력, 부부간에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공통의 경험을 가지도록 하는 노력, 감사하고 서로 서로 존경 등을 나타내 보이는 생활을 할 때 우리는 성공적인 결혼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다음의 시(詩)는 어린이들에 관한 시인데 어린이들에 대해 쓴 시라 생각지 말고 모두의 배우지에 대해 쓴 시라 생각해 보자.

모든 인간은 다 그런 것 같다.

만약 한 어린이(아내나 남편)가 비평과 함께 산다면 그는 정죄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

만약 한 어린이(아내나 남편)가 적개심을 가지고 산다면 그는 싸우는 것을 배우게 된다.

만약 한 어린이(아내나 남편)가 조소와 함께 산다면 그는 수줍어 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

만약 한 어린이가(아내나 남편) 수치와 함께 산다면 그는 죄책감을 느끼며 사는 것을 배우게 된다.

만약 한 어린이(아내나 남편)가 관대함과 함께 산다면 그는 인내를 배우게 될 것이다.

만약 한 어린이(아내나 남편)가 적려와 함께 산다면 그는 자신감을 배우게 될 것이다.

만약 한 어린이(아내나 남편)가 칭찬과 함께 산다면 그는 감사하는 것을 배우게 될 것이다

만약 한 어린이(아내나 남편)가 공정과 함께 산다면 그는 정의를 배우게 될 것이다.

만약 한 어린이(아내나 남편)가 안정과 함께 산다면 그는 신앙을 가지게 될 것이다.

만약 우리의 어린이(아내나 남편)가 인정을 받으며 살면

그는 자신을 싫어하거나 증오하는 일이 결코 없게 될 것이다.

만약 한 어린이(아내나 남편)가 수용과 우정과 함께 살면 그는 이 세상에서 사랑을 발견하게 된다.

* 본 원고는 성경학원에서 가졌던 실존부부교육 중에 강의된 박성수 박사의 강의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그리스도가 너를 비추느니라

장 철 환

<중등부 교사>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생활을 하다 보니 어느 면에서 행동반경이 좁아지는 듯 싶었다. 퇴근 후 동료들과 어울리는 일, 오랜 만의 동창들의 모임, 상관의 대접 등에 신경을 써야 하고, 각종 행사(학술대회, 체육대회, 야유회, 기타)가 주일과 겹치는 경우 심신의 피곤을 숨길 수가 없다.

직장 동료 송별회에서 주위 선배들은 “혼자 천당 가려고 그러느냐?”며 부드럽게 비꼬기도 한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곤역은 웃사람으로부터 부당한 일의 강요, 메이커로부터 적당한 교섭 등이다. 얼마 전 모처의 뇌물 부정 사건이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었는데 “왜, 그렇게 미련하게...” 마지 못히 기발한 표안으로 합리성을 찾지 못하고 절했다는 말투다. 이런 상황에서 롬2:12에 계시하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말씀이 힘이 되었다.

남과 함께 사는 하루 속에서 그리스도를 사이에 두고, 검은 것과 흰 것의 선이 분명치 않은 교차점에서 회색빛, 인간의 자연적 굴레에 제어를 할 수 없는 욕망의 움직임, 사람의 이상과 하나님의 현실문제에 부딪친 어느 날 청년부 목장이 있었다. 이동원 목사님의 「새생물 세미나」에서 말씀의 대열이 영상화되면서 내 안에서 밝은 빛으로 햇빛을 받은 것이다. 비로소 영의 힘이 박탈당했던 과거의 대응책들이 창조적 제안으로 생활에 활용할 수 있었다.

급년들어 가속화된 믿음의 확신과 담대성을 갖고 직장 선교사라는 소명감으로 기도해 열중하고 있다. 전문서적으로만 놓여 있던 직장 테이블 위에는, 성경과 Ten-Step이 왼쪽편에 놓여 있어 누가 보아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침묵의 증명이다. 다른 곳으로 직장을 옮기는 남·여·노·소, 신·불신이든간에 송별 하루 전날 내방으로 초청, 그에게 성경 말씀을 읽어주고 기도하며, 이야기를 나누다. 이때의 기쁨은 예수 믿는 나만의 특권이 아니겠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해지지 않겠는가.

최근 일상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아침마다 새롭게 역사하고, 그리스도와와의 사귄에 노력할 수 있는 것은 첫째 매일 성경 읽고, 둘째 쉬지 않고 기도하며, 세째 성도끼리 교제하여 지체·의식의 튼튼하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며, 네째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다섯째 그분께 순종하여 밋지 않는 사람들의 머리가 되는 것이다.

만약 예수를…… 아니 생명의 은혜를 받지 못했다면 소름끼칠 불의와 무서운 죄악과 착하여 그것이 적인

줄도 모르는 불행한 인생으로 전락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주님과 함께 생활하며 그 안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내 귀에 확실히 들리는 소리 “그리스도가 너를 비추시느니라” 이 음성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생활이 있기 때문이다.

□ 교사 수필필레이⑥ □

예수 몰랐다면

신 성 덕

<중등부 교사>

누구나 겪게 되는 아침 출근길, 여기부터 나의 하루의 생존경쟁이 시작된다. 저지하는 안내양의 기고만장(?)한 기색도, 알뜰한 숙녀처럼도 나에게 승차를 포기하도록 하지는 못한다.

며칠 전에도 많은 사람을 통바구니에 끼어, 저우 올라탄 후 그동안 재촉한 요령으로 덜 비좁은 곳에 나의 위치를 정하려고 할 때다.

“언니, 그럴 문제는 오빠에게도 의논하지만 기도를 하세요.”

“그런데, 기도는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요.”

갑자기 기도라는 말에 귀가 번쩍 뜨여 겨우 고개를 돌려 봤더니, 바로 내 옆에서 형제같이 보이는 두사람이 있었다. 그들은 이리저리 밀리면서 저마다 짜증있고 우기치 상인 팔원버스 속과는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부드럽고 평안한 표정으로 말을 계속하였다.

“언니, 이번에 회사 그만두고 나를 데 사보(私報)에다 갈 하나 멋지게 쓰고 나가요.”

“그리고 싶지만 전도하는 내용으로 쓰면 안 될 것 같애.”

“그러니, 저해롭게 은근히 쓰면 되잖아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팔을 걷고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 말을 전할 용기를 갖지 못한 채 속으로 기도를 드렸다.

“주님 오늘 저에게 새로운 드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버스가 복잡하다고 주님을 잊어버린 저를 용서하여 주소서. 이 버스속, 아니 엄밀히 말한 세상의 저열한 생존경쟁의 현장에서도, 버스속의 이 분과 같이 한 알의 밀알의 역할을 다할 수 있게 하사, 저희가 가는 곳마다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지금은 남들 보기에 구질하고 초라한 인생을 살고 있지만, 마지막 날에는 광기하고 밋치지 않더라도 승리의 천국 행마스를 탈 수 있게 하여 주소서.

<다음 지명: 김원호 선생>



기독교와 진화론

이 승 근 전도사

<교육위원 · 교동부 지도>

차 례

서 론

1. 진화론의 기원
2. 진화론자들이 사실이라고 증명하는 근거
3. 진화론이 성립할 수 없는 이유
4. 유신론적인 진화론
5. 진화론과 성경

결 론

서 론

진화론이란 생물의 질이 세월의 흐름에 따라 변천되어 아주 다른 종류가 된다고 하는 학설이다. 이 학설을 주장하는 사람은 사람도 본래부터 사람이 아니었고 일반 동물 특히 원숭이 종류가 변천하여 사람이 되었다고까지 말한다.

이같은 학설이 일반적으로 잘 용납되어 있어서 국민 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진화론 체제로 모든 학과를 공부하게 되었고 또 학자들도 대부분 진화론을 신봉하고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진화론을 반대하거나 비평하는 사람은 과학을 알지 못하는 무식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고 있다. 그러나 진화론은 사람이 짐승과 같다는 것으로 종교를 무시하여 기독교의 원죄와 창조를 거부하는 과학자들이 날조해 낸 가설일 뿐이다.

이제 진화론의 기원을 살펴보면서 성경적인 창조론의 입장에서 진화론의 잘못된 점을 고찰해 보자.

1. 진화론의 기원

진화론은 다윈(Darwin)의 저서인 '종의 기원' (The Origin of Specie)에서부터 신기원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이 책에서는 모든 생물체는 '종'의 진화 과정에 의해서 생성되어 왔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면 '종'이란 무엇인가? '종' (種)에 대한 정의가 있기는 하나 순전히 형식적인 것으로 '종'은 생물학적 분류에서 속(屬(genus))과 아종(亞種 Sub-Species)의 중간단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것은 마치 「되(升)는 용량에 있어서 말(斗)과 홉의 중간 단위」라는 식이다. 그러나 만일 '종'이 이와같이 정의가 된다면 진화에 의하여 새로운 종이 생성되었는지의 문제는 순전히 학술적인 것일 뿐 실제적인 것이 될 수는 없다.

그 밖에도 많은 사람이 '종'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으나 그 학설들이 일치되지 않고 있다.

2. 진화론자들이 사실이라고 증명하는 근거

(1) 분류에 의한 증거

동식물은 종·속·과·목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은 이들간에 발생학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주장한다.

(2) 비교해부학에 의한 증거

원숭이와 인간, 말과 코끼리간에 나타난 골격구조의 유사점들이 진화론적인 혈연관계를 내포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3) 태생학의 증거

상이한 여러 동물들의 유사한 배아와 또 그 배아가 성숙한 동물로 진화론적인 성장변화를 거친다는 가정을 동물이 상호 연관되어 있고 또 이들 동물이 지질학적 연대를 통과하는 동안 현재의 상태로 진화론적인 발전을 거쳐왔다는 증거라는 것이다.

(4) 생화학의 증거

살아 있는 모든 유기체들이 일정한 화학적인 기본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이 살아 있는 모든 유기체는 모두 한 조상을 가졌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가정한다.

(5) 생리학의 증거

생리학적인 요소들 특히 혈청과 행동의 유사성들이 발생학적인 혈연관계를 증거하는 것으로서 제공되고 있다.

(6) 진리학적 분포의 증거

어떤 종류의 동식물이 지리적 분포에 따라 특성이 변화되는 경향과 특히 많은 집단으로부터 타 지역으로 격리되던 별개의 특성을 획득하는 경향의 진화를 시사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7) 퇴화기관의 증거

현재 무용하다고 가정되는 어떤 구조와 기관들(예를 들면 인간의 맹장)은 전에는 유용하였고 또 이전 진화의 단계에서는 기능을 발휘했던 특성들이 퇴화된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믿고 있다.

(8) 실험사육의 증거

잡종을 만드는 방법과 다른 사육의 기술에 의해 발달된 여러 동식물의 새 품종은 산 유기체 안에 잠재해 있는 진화 가능성의 근거가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진화 가능성은 자연도태 방식에 의해 지질학적 연대를 지나오면서 실현되었는데, 인위도태가 새 품종을 생산키 위해 사용된 것과 같은 이치라는 것이다.

(9) 돌연변이의 증거

전혀 새로운 변종이나 품종이 돌연 특수 유기체에 나타난다는 관찰적인 사실이 오늘날 진화의 가장 확실한 증거로 제공되고 있다. 이들 새로운 특성을 "돌연변이"라고 부르는데 이 돌연변이가 수납할 수 있는 것이 된다면 이 특성은 자연도태의 양식에 의해 보존될 것이며 장기 진화과정에서 공헌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10) 고생물의 증거

지각의 퇴적암석에 보존된 이천 생물들의 화석은 유기체진화의 산 기록으로 지질연대가 경과함에 따라 복잡한 화석이 증가하는데, 이것은 현 유기체의 세계가 수십억년 전에 단순한 원초적인 형태에서 점진적으로 진보해 온 것을 밝히는 것이라고 한다.

이상 열거한 것중 처음 다섯가지 증거는 단지 한두 가지 종류의 유사성에 대한 증거일 뿐이다. 이러한 유사성들은 진화론적인 혈연관계보다는 오히려 같은 창조주에 의한 창조에 의해 더 잘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다음 네가지는 일정한 생물학적 변화가 발생할 수 있고 또 발생한다는 사실에 주위를 환기시켜 준다. 그러나 더욱 명백한 것은 모든 기본 유기체의 종류를 특별히 창조하되 각혈연 구조 안에 미래의 상이한 환경에 적응할 가능성을 내포한 것으로 설명하는 것이 더 월등하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 증거도 그 본질에 있어서는 추경적인 성질의 것에 불과하다. 즉 상이한 두 집단의 유기체가 다른 지질연대의 두세기 동안 생존했다는 사실은 한 집단이 다른 집단으로 진화했다는 것을 결코 증명해 주지 못한다. 앞에 나열한 일 가지 중 어느 것 하나도 진화를 필연적으로 증명하지 못한다.

3. 진화론이 성립할 수 없는 이유

(1) 인종의 단일성

- ① 인류의 방언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어원이 같은 것이 많다.
- ② 각민족의 습관과 풍속과 신념이 어떤 점에서 서로 같다.
- ③ 각민족의 종교행사에 있어서 희생제물을 드리는 것이 같다.
- ④ 인류학상으로 보아 인종이 퍼져 나간 출발장소가 같다(메소포타미아).

(2) 인류문명의 발달

원숭이는 옛적이나 오늘날의 것이나 아무 발달 없이 그대로 남아 있다. 즉 인류는 도구를 만들어 사용하나 원숭이는 그러하지 못하다.

(3) 진화론자들은 환경에 따라 생물에서 성질상 변화가 생길 수 있고 그 변화가 오랫동안 쌓이면 그 생물이 다른 종류가 된다고 하나 그것은 성립될 수 없다. 환경으로 인하여 얻어진 변화가 그 생물 자체의 종류를 근본적으로 변동시키지는 못한다.

(4) 진화론자들은 지질학상으로 각 지층에 포함된 화석들이 생물의 진화를 보여준다고 한다. 즉 화석을 포함한 지층이 육층이든 인류가 맨 윗층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구상의 어디든지 지층이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는 것이 없다. 단지 배열은 그들의 상상에 의한 것 뿐이다.

(5) 양심문제

짐승에게는 양심이 없다.

(6) 인류가 만일 원숭이가 변천되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원숭이와 인류의 중간적인 존재가 있을 것이지만 지금 그런 존재는 없다.

(7) 기원문제 해결이 불가능

우주나 생명 또는 인류의 기원은 실험에 의해 관찰되거나 측정될 수 없다. 이것은 신앙만으로 설명할

수 있다.

(8) 인류에겐 영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성이 있으나 짐승은 없다.

4. 유신론적인 진화론

유물론적인 과학자들에 의해 지지되고 있는 보편적 진화론은 무신론적이며 하나님에 대한 신앙보다 우연에다가 신앙의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유신론적인 진화론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신에 대한 신앙을 내포하고 있다. 이 진화론의 형태는 하나님이 생물체를 창조하실 때에 진화의 방법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많은 기독교자들에게 그럴 듯하게 보이는 이 유신론적 진화론의 한 형태는 주장하기를 인간 신체의 유기적인 조직체는 오랜 세월동안 진화의 발달과정에 의하여 점차적으로 생성되어 왔으며 마침내 신체적으로 인간과 유사한 것이 나타나게 되었다고 한다. 이 모두는 자연적인 과정이었다. 그리고 유기적 조직체들은 비인간적이었거나 인간 이하의 것이었다. 그러다가 어느 때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의 초자연적이고 창조적인 능력으로 이 진화된 유기적 조직체의 어떤 것에 정신을 또는 영혼을 심어주셨다. 그 결과 그들은 '인격'(person)이 되었고 그 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

이런 식으로 한편으로는 과학을 인정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성경의 진리를 수호하고 있다. 그러나 유신론적인 진화론은 '창조'와 '선택' 사이에 차이점을 파괴하고 소멸시킨다는 사실로 비성경적임이 나타난다.

성경에는 창조사역에 사용되는 히브리어 동사는 '바라'로서 이를 표현하고 있다. 이 말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구약성경에서는 55회만 나타나는데 모두가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할 때 사용되어진 단어이다. 반면에 히브리어 동사 '아사'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는 경우가 2,600번 나오는데 이것은 '만들다', '일한다'로 번역할 수 있다. 이 '아사'는 제이차적인 원인과 자연의 힘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이고 전혀 새로운 어떤 것을 만드신지 않고 그저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선택적인 행동을 표현할 때 사용하였다. 그러나 유신론적 진화론은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적 사역과 구별되는 창조사역을 표현함에 있어서 '바라'라는 동사를 특별히 사용한 것을 설명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유신론적 진화론도 비성경적이다.

5. 진화론과 성경

진화론에 대한 궁극적인 반대는 성경이 진화를 부인하고 있다. 창세기 1장 1절에는 창조론을 선언하고 있다. 성경에는 사람이 영(창1:26)과 육(창2:7)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하나 동물은 흙으로만 지음을 받았다고 한다(창2:18). 그러므로 인간과 동물은 창조의 근본부터 다르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

결론

성경은 진화론을 부정하고 창조론을 말하고 있다. 만일 사람이 진화론을 믿는다면 인간의 존엄성을 모르거나 다른 사람을 짐승 취급하게 될 것이고, 물체 잔인 무도하고 극히 짐승과 같이 비본능적으로만 사는 더러운 자가 될 것이며, 세계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만큼 내세의 소망을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



이단들에 대한 우리의 자세

윤 형 철 전도사

<충청북도 · 충신연구원 3년>

▶ 이단종교 비판 시리즈 차례 ◀

1. 이단종교란 무엇인가(1)
2. 이단종교란 무엇인가(2)
3. 이단종교—여호와와 증인
4. 이단종교—물론교
5. 이단종교—통일교
6. 이단종교—안식교
7. 이단종교—진도관
8. 이단종교—크리스찬 사이언스
9. 이단종교—새일교단 · 장막성전
10. 이단종교의 포교활동
11. 이단들에 대한 우리의 자세

현대 기성교회를 향하여 도전해 오는 가장 큰 외적 요소는 불건전한 신비주의운동과 자유주의를 포함한 이단종파들의 활동이다. 기성교회가 이들을 대할 때마다 두려움을 가진다든지, 혹은 그들을 무시하거나 무관심한 태도를 취한다든지, 혹은 그들을 경계하고 배격하는 것만이 길로 이단종파들을 대하는 바람직한 자세라고 할 수는 없다.

우리를 향하여 도전해 오는 이단종파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그리스도의 복음의 충성스러운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있을까? 다음 몇 가지로 이단들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제시코자 한다.

1. 기성교회의 반성과 회개가 있어야 한다

기성교회 교인들이 이단종파와 불건전한 신비주의 운동에 호기심을 갖고 끌려가고, 유사 종교, 사이비 종교, 사교(邪敎) 등이 번창하는 중요 원인 중의 하나는 기성교회에 대한 반발을 들 수 있다. 일부 기성교회의 부패, 위선적이고 독선적인 처세, 형식적이고 구태의 연한 의식, 영적 능력의 상실, 사랑의 부재, 교파싸움, 지도자들의 교권쟁탈등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기성교회를 떠나 잘못된 길로 빠져들어가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단들을 비판하고 변박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부터 돌아보고, 회개할 것은 솔직히 회개하고, 잘못된 것은 즉시 시정해야 한다. 예수님께서 “실족케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게 하는 자에게는 화르다 저가 이 작은 자중에 하나를 실족케 할진대 차라리 연자뱃들을 그 목에 대이우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나으리라”(눅 11: 1-2) 하신 말씀이 두렵기만 하다.

2. 우리 자신이 성경을 열심히 연구해야 한다

이단들은 성경과 병행하여 그들의 정경을 갖고 있으며, 이 정경을 그들의 신앙과 생활의 표준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그들의 정경과 그릇된 교리를 변박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을 자기들의 원리에 맞게 사사로운 해석하며, 억지로 끌어, 심지어는 가감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들의 그릇된 성경해석에 미혹되

지 않도록 성경을 열심히 배우고 연구해야 한다. 저들의 거짓된 교훈으로부터 우리 자신의 신앙을 보수하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할 뿐 아니라, 나아가서는 저들의 잘못된 성경해석을 변박하며, 미혹된 자들에게 성경을 바로 깨우쳐 주기 위해서도 성경연구가 필요하다.

보다 적극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이 더 이상 미혹되지 않도록 지식을 통하여, 학술활동을 통하여, 세미나나 심포지움을 통하여 이단종파들의 잘못된 교리와 생활을 폭로하고 성령의 감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의 무기를 격파해야 한다.

3. 이단에게 미혹된 자들에게도 전도해야 한다

우리가 이단을 정죄하거나 그들의 교리를 배격하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된다.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심정으로 권면하고 전도하여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해야 한다. 바울 선생님이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롬 10: 14)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저들에게 바른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어찌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겠는가?

바울 선생님은 디모데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번 훈계하라(딤후 3: 10)고 하셨으며, 사탄의 뜻을 좇아 그에게 포로된 자들도 하나님께서 저들을 회개시켜 진리를 깨닫게 하고, 마귀의 음모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 뜻을 좇게 하신다(딤후 2: 25-26)고 하였다.

4. 성도들이 주님 만날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이단들의 출현과 성행은 가장 뚜렷한 종말론적 현상 중의 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 끝날에는 자칭 그리스도들이 나타나 사람들을 미혹케 하겠으며(마 24: 5),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이 일어나 표적과 기사를 행할 것이라(마 24: 24)고 하셨다. 바울 선생님도 말세에는 배도하는 일이 있겠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할 자들이 나타날 것을 말씀하셨다(살후 2: 3-4). 사도 요한도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겠다고 말씀하셨다(요일 2: 18).

그러므로 우리는 이단들이 성행하는 것을 볼 때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졌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지금 당장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부끄러움 없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더욱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할 것이다. 말세의 징조가 눈앞에 뚜렷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이 기름을 준비치 않고 졸기만 한다면 어찌될 것인가. 예수님께서도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올것인즉 항상 깨어 예비하고 있으라(마 24: 42, 44)고 당부하셨으므로 우리는 종말론적 삶의 태도를 가지고 생활해야만 한다.

*

“그렇게 괴롭고 견딜 수 없는 일이 닥쳐오더라도 일정한 기일이 경과한 후에는 그 때의 내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부끄러움을 감출 길 없음을 통감했다……”

(본문 중에서)

청년 신앙수필



이 해를 보내면서

한 정 배

<전 청년부 회원>

월간충현 지난 8월호에 보면, 헨스 스타이나 라이스의 이런 시(詩)가 적혀 있다.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좋은지 아버지 아시니
불평할게 무어랴.
우린 언제나 햇살을 그리나
비가 내려야 함을 하나님은 아시느니
우린 웃음소리
베르는 괴롭과 슬픔으로
우리를 시험하시는 아버지
그 시험은 벌이 아니라
내일을 맞이하라는 우릴 도우심이여라.

나는 이 시(詩)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을 읽고 이 시인과 어쩌나 마음이 합하는지 모른다. 나는 언제나 평안한 생활이 되어지길 바라는 것이 내 심정이었다.

그러나 견딜 수 없을 정도의 수난이 다가올 때 나의 생각은 극에 달하고 내가 신뢰하는 주님께 원망일 듯한 투정을 말하기도 하였다. “주님! 이런 수가 있습니까?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하고 목이 메이도록 외쳐보기도 했다. 그러나 나에게 무엇이 좋은지 아버지, 제시는 알고 계셨다. 그렇게 괴롭고 견딜 수 없는 일이 닥쳐오더라도 일정한 기일이 경과한 후에는 그때의 내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부끄러움을 감출 길 없음을 통감했다.

만일 내가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었다면 주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신 연고요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기로 작정한 것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았다. 당시에는 견딜 수 없는 고난이었지만 그것은 나에게 벌이 아니라 내일을 맞이하라는 도우심이였다. 이 해를 보내면서 지나온 일들을 돌이켜 볼 때 부끄러운 일들이 너무도 많다. 올바르게 살기를 원했고 주님께 기쁨을 안겨드릴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추구했지만 항상 내 속에 있는 죄가 합리적인 방법으로 나를 유혹했고 고난을 안겨다 주었다. 그러나 이 고난 속에서 살고 지내온 동안 내 생각은 깊어졌고 주님을 향하는 마음은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진 것은 사실이다.

처음 주님을 만난 후 첫사랑에 매혹되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설치였던 시절, 모든 거룩한 주의 일대 부정적인 비판을 했던 행위, 나 자신이 제일이라는 엄청난 교만심, 마치 하룻강아지 털 무서운 줄 모르는 생활이 아니었는가 생각된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그대로 두지 않으셨다. 고무풍선처럼 내용 없는 내 실령을 여러가지 방법으로 깨우셨다고 생각된다. 바로 군대의 일대가 그것이다. 험한 생활의 변화를 안겨다 주었다고 생각된다. 안위

적이고 이상적인 사상이 통하지 않는 특수사회, 말로만 떠벌이고 행동이 없는 생활을 알아주지 않는 사회가 군대가 아닐까? 주님께서 몸소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그런 사상을 겸허한 행위가 요하는 곳이 아닐까 생각된다.

조금 장외한 말이지만 주님께서는 공생애 기간동안 의미 있으신 눈물을 세 번 흘리셨지만, 아마 나는 의미 없는 눈물을 손으로 훔아보지만 한참이나 될 것이다.

군대에 처음 입대해서 주일날 교회에 참석해서 흘린 눈물. 무슨 뚜렷한 이유도 없이 흐르는 눈물로부터 시작해서 훈련 중에 기쁨을 받고 서러워서, 자대에 배치될 받고, 생활 중에 이런일 저런일의 이유로 남몰래 울기도 많이 울었다. 어떤 때는 앞뒤가 막히고 앞길에 침울함이 감잡함에 처하는 심정인 문제가 대두할 때 기도도 나오질 않고 성경말씀도 안중에 들어오지 않을 때도 몸부림치며 주를 향해 도우심을 바랄 때 불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했다. 마치 진통하는 병을 앓고 있는 환자가 진통제를 복용함으로써 진통이 멈추듯이 마음에 잠잠함과 평온함을 되찾는 체험이었다.

이렇게 문제를 놓고 해결을 간구하고 애쓰는 가운데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으며 주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 풍요해졌다고 생각된다. 나는 이 해를 보내면서 주님은 나에게 무엇이 좋은지를 나보다 더욱 잘 아신다고 확신한다.

나는 아직 내 앞에 괴롭과 슬픔으로 시험하시는 아버지의 역사가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아직도 나는 미완성품이다. 모가 난 것이 너무도 많다. 그러나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나에게 무엇이 좋은지 아버지께서 더 잘 아신다는 것을 염두해 두고 성급히 서둘지 않고 여유있는 마음의 자세로써 어린아이처럼 기도와 간구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그리고 이전보다 더욱 차원 높은 신앙과 생활로 하늘나라의 기쁨과 평화와 소망이 내 영혼 속에 넘치도록 소원하게 되는 것이다.

* 720-71

제 6357부 제 3대대 진중교회
평장 한 정 배

주일학교 교사총회 소집공고

- ☐ 대상: 충현교회 주일학교 교사
- ☐ 일시: 1977. 12. 30(금) 오후 7시
- ☐ 장소: 본당 대예배실과 작부 예배실
- *당일 15시부터 저녁식사 제공

충현교회 주일학교 교장 김 참 인

◇ 영어성경 안내 ◇

영어성경의 바른 선택

편 집 부

성경 말씀을 보다 잘 이해하고 공부하려면 여러 가지 역본(譯本)을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 들어 우리말 성경이 몇 가지 역본을 갖게 되었는데, 영어성경 역본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다. 여기에서 올바른 선택의 문제가 대두되는데 특히 우리 젊은 세대들을 위해 좋은 안내가 될까 해서 정리해 본 것이다.

다음은 교계에 많이 알려지고 보급된 것들로서 중에서 구할 수 있는 역본들이다. 나온 연대순으로 정리하면,

① King James Version(1611)——고어체로 되어서 좀 어렵다. 그러나 원문에 충실하고 신학적 교리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가장 권위 있는 역본이다. 문체가 아름다와 영문학도들의 필독의 서(書)이기도 하다.

② Revised Standard Version(1952)——자유주의적 입장의 역본으로 자유주의 교회에서 예배시에 사용한다.

③ The Amplified Bible(1965)

④ Jerusalem Bible(1966)——천주교 학자들이 자유주의적 입장에서 번역한 것이어서 원문을 수정한 곳이 많다. RSV, NEB보다 자유주의적 색채가 더 짙은 것으로 우리의 공동 번역 성경과 같은 점이 많다.

⑤ The Modern Language Bible(1969, 또는 The New Berkeley Version in Modern English)

⑥ New English Bible(1970)——영국 학자들의 자유주의적 번역으로 RSV보다 더 부정적이다. 영어의 현대화는 이룩하였으나 KJV보다 문체가 못하

고 권위도 부족하다.

⑦ The New American Standard Bible(1971)

⑧ The Living Bible(1971)

⑨ Phillip's Revised Edition(1972)

⑩ The New International Version(1973)——구미 각국의 보수주의 신학자들이 초교파적으로 정확히 잘 번역한 것인데, 신약본이고 구약은 현재 번역 중에 있다.

⑪ Today's English Version: Good News Bible(1976)

이상의 여러 역본 가운데서 ②④⑥(RSV, JB, NEB)을 제외하고는 어느 것을 사용해도 무방하다 할 수 있다. 미국 보수주의 교단에서는 ①은 물론 ⑦도 예배시에 사용하고 있다. ③⑧⑨는 일상 쉬운 영어로 의역한 것이어서, 읽기에 편하며 이해에 도움을 주는 점이 많다. ⑤⑩는 현대인을 대상으로 한 보수적 역본들인데, 특히 ⑩는 구약까지 완성되던 예배시에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안다. ⑪은 번역상의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나 영어에 익숙치 못한 사람이 이해하기 쉽도록 현대의 쉬운 영어로 번역된 것이다.

우리가 역본을 선택할 때는 목적상 예배를 위한 것과 개인적 경건과 쉬운 이해를 위한 것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위의 안내는 좋은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가지 덧붙일 것은 역본 선택시 반드시 서문을 읽고, 기타 발행인·출판사·번역자 등을 가려 보수주의적 역본을 택해야 한다는 점이다.

□ 도서 정보

도서실은 여러분을 위해 문을 활짝 열어 놓았읍니다

우리 교회의 도서실은 신학 및 기독교 관제와 그밖에 많은 서적을 구비하고 성도들이 문헌을 통하여 은혜를 받으며 신앙에 관한 진리 탐구를 하도록 많은 이용을 바라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난 달 구입한 책과 이미 소장된 책들을 도서대장술에 따라 소개합니다(책명/저자(번역)/출판사).

□ 10, 11월에 구입한 책 □

-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 / 드림몬드 헨리 / 한길사
- 선교정책원론 / 마이클 하우스 / 한국성서협회
- 성경동화집 / 이태선 / 백함출판사
- 언어신학서설 / 에틸링 / 중앙신학교 출판부
- 신약단권주석 / 강배국 / 해문사
- 기독교윤리학 / 하크니스 조오지아 / 대한기독교서회
- 교회예식서 / 박병진 / 성광문화사
- 기독교와 현대사상 / 세이퍼 프란시스 / 성광문화사
- 제2차세계대전실록 / 조의설 / 중앙문화사
- 비름 성경주석 / 조셉 메이필드 / 보이스사

- 원국의 항위 / 슈링크 바실레아 / 아세아방송국
- 20세기의 거적들 / 슈링크 바실레아 / 아세아방송국
- 한국기독교성장사 / 김광수 / 기독교문사
- 이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책 / 제이메카 / 성광문화사
- 참영원 구원보장 / 피카이저 / 생명출판사
- 양치는 언덕 (상·하) / 三浦綾子 / 실우사
- 기술문명과 종교 / 장병일 / 대한기독교서회
- 자연과 은총의 교차로 / 홍현설 / 대한기독교서회
- 여백을 위한 사상 / 지명관 / 대한기독교서회
- 생활과 신앙 사이 / 지명관 / 대한기독교서회
- 기독교명서선 / 김희보 / 대한기독교서회
- 하나님을 향하여 / 바클리 / 대한기독교서회
- 신앙과 신학 / 이종성 / 대한기독교서회
- 요한 웨슬레 / 송홍국 / 대한기독교서회
- 지휘관 / 조의설 / 중앙문화사
- 오직 주님만 섬기면 / 슈링크 바실레아 / 아세아방송국
- 창세기 출애굽기 주석 / 박윤선 / 영음사
-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주석 / 박윤선 / 영음사
- 여호수아 사사기 룖기 주석 / 박윤선 / 영음사
- 욥 전도 아가서 주석 / 박윤선 / 영음사
- 시편 주석 / 박윤선 / 영음사

저 들밖에 한밤 중에

(The First Noel)

(새 129; 개 82; 합 96)

저 들밖에 한밤 중에
양 림에 자던 목자들
한 천사가 전하여 준
주 나신 소식 들었네
노엘 노엘 노엘 노엘
이스리엘 왕이 나셨네

「성탄은 아름다워서 미치는 날」이라던 줄 지나친 표현일지 모르나 그래서인지 성탄의 아름다운 찬송은 실상 아무 상관없는 거리의 사람들까지도 매혹한다.

이 노엘(Noel)이란 말에는 어원이나 진의가 구구하다. 그럼에도 노엘이 비기독교인에게도 기쁨을 주는 감명깊은 찬송을 이루는 것으로 여러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을 살펴본다.

노엘(Noel)이란 어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쁨의 외침」을 나타내는 불어에서 파생된 것으로 보기도 하고, 또 다른 이는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의 탄생일이니 만큼 그 말의 어원은 생(Birth)을 가리키는 중세 라틴어 「나타리스(Natalis)」에서 나온 것으로 보기도 했고, 소식(News)이란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소식을 전하는 말 즉 그리스도의 강림에 기쁨으로 외친 노벨라(Novell)란 말에서 나온 것이라고도 한다.

좀 더 신빙성있는 주장으로 영어의 노웰(Nowell)이란 말이 있다. 이는 노엘(Noel)과 같은 뜻으로 노웰(Nowell)이 노엘(Noel)이 되었다는 설이다. 여기에 의하면 노웰(Nowell)이란 처음엔 「Now all is well(자 이제 제는 모든 것이 평안하다)」라는 뜻이다. 즉 하나님은 어둠 속에서 해를 인간들을 불쌍히 여겨 위대한 빛 되시는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주셨으니 불안에 떨던 인생들이 그리스도를 모셔들여 지극한 평안을 얻었으므로 크리스마스 아침이 되면 「Now all is well」이란 인사를 교환했다는 것이다.

세상이 하도 험해 많은 사람이 한숨을 쉬며 세상을 개탄하고 열세적인 불신자들은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할 때에 크리스찬들은 「세상에 누가 와 있는지 아는가? 이제 모든게 평안하다」라고 하면서 낙관적 태도를 보여 주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즐거운 말—「Now well(이제는 평안하다)」라는 말이 되었고 합쳐져 Nowell이 된 것으로 노엘의 원의는 「자 이제 제는 모든 것이 평안하다」이라는 뜻이 되었다.

이 찬송은 17세기에 나온 것으로 작자명을 밝히지 않고 발표했다. 작시자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눅 2:10)라고 목자들에게 전한 천사의 소식에 입각하여 베를레헴에 그리스도가 탄생했으니 「이제는 모든 것이 평안하게 되었다」고 안도의 숨을 쉬던 첫 크리스마스의 기쁨을 그렸고 크리스찬은 이 말을 오래도록 서로 교환하며 인사를 하였는데 이것이 찬송이 되어 노래로서 첫 노엘의 기쁨 되고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나타냈던 것이다. 그러므로 20세기 성도들은 첫 노엘의 기쁨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2,000번째 노엘의 기쁨을 부르는 것이다.

가장 많이 불리우는 크리스마스송의 하나인 이 찬송은 교회 내보다 교회 밖에서도 많이 불리웠다.

1700년 가락

절대 사랑 ③

이 형 수

흔히들 12월을 사랑의 달이라고 부른다. 1년을 마감하는 12월을 맞으면 아무리 냉정한 사람이라도 조금씩은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고 싶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길거리의 자선냄비에 더욱 눈이 가기도 하며 웬지 모르게 착(善)해지는 자신들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런 명칭에 모두가 공감을 하는지도 모른다.

영어의 「사랑하다」라는 동사 러브(love)는 진행형이 없는 동사이다. 진행형을 써서 비 러빙(beloving)이라고 하게 되면 「사랑한다」는 원래의 뜻이 아니고 특수한 경우 「사랑하기」 정도의 뜻을 갖는다. 그것은 마치 무대 위에서 사랑하는 정도, 또는 사랑연습 정도를 뜻하게 된다.

이것에서 볼 때 사랑은 어느 사랑의 행동을 할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 그 자체가 계속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 늘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하며 또한 사랑은 연습이 있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사랑은 서로의 생활에서 잔잔히 깔려 「늘하는 것」이지, 필요하고 할 만한 경우가 있을 때에만 하는 것이 아닌 것이다.

우리는 주간 내내 잊고 있다가 주일날이 되어서야 또는 감사절이 되어야, 성탄절이 되어야 주님의 사랑을 찾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 않는지 생각해 보자.

마지막 달이 되어야 사랑을 들먹이고 하는 사랑은 일시적으로 하는 무대 위의 사랑연습이 아닌 것인지도 생각해 보며, 금년도 우리의 결산서를 점검해 보자. 그것도 사랑의 항목을 결산해 보자. 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을 우리는 늘 사랑했는지? 그래서 1년을 보내는 우리들이 주님께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합니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지.

새해가 온다.

오는 해에는 우리 모두 개인의 삶의 목표 중에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라는 항목이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나의 이웃을 더욱 사랑하는 사랑의 내용들이, 아니 새해에만 아니라 매년마다 「사랑」이라는 목표가 설정된 신년의 결심을 다짐할 수 있다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인 사랑이라고.

시편에서 주는

주간에 만나

시편 23 : 1

양과 목자

『여호와야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도다』

성도들의 모습을 냉정하게 따져보면 양과 같습니다. 양은 「약자」라는 말입니다. 인간은 몸도 튼튼하고 지식도 지혜도 기술도 많아서 산을 뚫을 만한 힘이 있는 것 같으나 죄악을 이기는 데는 너무나 무력하여 지렁이와 같습니다.

양은 어리석다는 말입니다. 인생은 어리석습니다. 「왜, 어리석어? 달나라까지 여행을 하네!」 가장 지혜로운 인생 같으면서도 복밭을 길은 가지 못하고, 망할 길만 끝까지 가는 때가 있는 바보노릇도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양의 행복은 자신에게 있지 않고, 선한 목자를 만나야 합니다. 선하신 목자를 만난 양은 배고프지 않고, 원수의 지배를 받지 않고, 길 잃어버릴 염려가 없으니 평안하고 살이 쪼입니다.

양처럼 연약한 성도여, 주위에는 악마가 가득차 있는 어려운 세상을 가야 하는데, 죄악의 밤이 깊어 가는 이 세상을 나 혼자 가지 말시다. 아무때나 따라가지 말시다. 선한 목자되신 예수님만 믿고 따라갑시다.

시편 24 :

영광의 왕을 모시시다

『문물아 너의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물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다윗은 사울 왕의 미움을 받게 되어 십년이 가깝도록 망명생활을 하다가 이제 왕의 자리에 앉게 되면서 생각하기를 하나님만이 우주의 대왕이시며(1-2절), 하나님만이 예루살렘의 영원한 주인이심을 깨닫고(3-6절), 하나님을 예루살렘의 대왕으로, 성전의 주인으로 영접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물아...① 예루살렘의 성문물아, ② 성전의 문물아 ③ 모든 사람의 마음문물아 활짝 열어 놓고 영광의 하나님을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이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경성을 다하여 영접합시다.

이 영광의 왕은 강하시어 악을 이기시고, 능하시어

모든 일을 이루시고, 전 우주의 최상의 주권자이십니다. 삶과 내생에 억만가지 모든 일의 주권자요 통치자요 심판자이십니다.

시편 25 : 1-7

환난 중에 처한 성도의 기도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인간적으로 진리가 양난인 궁지에 빠져 원수들의 조롱을 받을 때에, 낙심도 원망도 없고 원수를 미워할 마음도 없고 오히려 환난의 모든 원인은 자기의 죄악으로 인하여 생기는 일로 생각하고 죄를 찾아 회개하고 다만 하나님의 보호와 지도를 비는 기도의 시편입니다.

「주를 우러러 보」는 그 태도, 세상의 밑천 것이 무너지는 그 날, 낙심하지 않고 원만하지 않고 타락하여 발악하지 않고 주님을 만물의 주인, 나라의 주인, 내 영혼의 주인으로 믿고 눈물을 먹음고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자는 진리에 처박혀서 죄악의 압력을 받고 근심에 눌려도 녹아지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①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십니다(3절). ② 진리로 지도하여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5절).

그러므로 우리는 「종일 주를 바라보」는 생활을 해야겠습니다.

시편 25 : 5

환난 중에도 진리를 떠나지 말자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성도는 거짓말에 숨겨져, 사람의 겉으로 성을 쌓고 말고 성도가 갈 길은 진리에서 살다가 죽으려고 하는 것이 참 성도입니다.

사람은 욕심을 채우려고 진리를 떠나고, 환난을 면하려고 진리를 떠나기 때문에 다윗은 「진리로 나를 지도」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바질리에서 살기보다 진리에서 고생하다가 죽는 것이 참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진리되신 예수님을 떠나 물러가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도 열두 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고 물으실 때에, 베드로는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니 우리가 뉘지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를 믿고 알았삽나이다」라고 대답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계속하던 중 마지막에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박히면서까지 진리되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우리도 「주의 진리대로 나를 지도하시고」자 하실 때에 순종하여 따라갑시다.

“내가 주의 법도를 묵상하며 주의 도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 하리이다”

(시 119 : 15, 16)

구역 소식

축하합니다(11월중 결혼)

- 한영철군/김기녀권찰 아들, 5일 오후 3시 동원 애식장
- 서명숙양/서동석 집사·조기남 집사 장녀, 7일 오전 11시, 중랑교회당
- 한혜순양/조말배 집사 2녀, 7일 오후 3시 본 교회당
- 정구성군/중부 김옥련씨 장남, 11일 오후 1시, 수도에식장
- 오영환군/배능구역, 17일 오후 1시, 본교회당
- 권오명군·강화순양(주교교사)/18일 오후 2시, 본교회당
- 한형식군/이문자집사 장남, 19일 오후 1시 30분, 본교회당
- 김영순양/노번씨 2녀, 17일 오전 11시, 종로에식장
- 이관호군(김영업씨 2남)·김유혜양(김임근씨 2녀)/23일 12시, YWCA강당
- 강철구군/갈현구역, 29일 12시, YWCA강당
- 엄태현군·박현순양(오순덕 권사 외손녀)/30일 오후 1시, 행복에식장

위로드립니다(11월중 별세)

- 이상업씨/46세, 필동②구역, 26일 별세

구역교사 선발에 앞서—

전 구역원들에게 드리는 말씀

새해부터는 구역이 대폭 증설(53개 구역)됨에 따라 지금까지 교역자들과 장로들만이 가르쳐 온 구역공과를 구역장이나 아니면 선발된 교사에 의해 인도하는 일로 구역교사제도를 신설하는 문제를 장로들 간에 숙의중에 있습니다.

구역 교사는 집사나 권사 혹은 장로까지 포함해서 유능한 분들로 임명될 것인데 구역장직을 겸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게 될 것입니다. 구역교사는 비록 구역장이 아니라 해도 구역행정에 관해서 성도의 교제법과 구약의 행사에 관한 지도를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역교사는 임무수행상 자동적으로 권찰회에 참석하게 될 것이며 구역장과 협력에 있어야 할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앞으로 구역교사로 선택받는 이들은 준비공부시간에 꼭 참석하고 평소에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구역의 부흥과 구역원들의 영적 실력을 키워주는 데는 구역교사들의 실력과 인격적인 감화력이 크게 작용되기 때문입니다. 새해에는 구역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와 참여가 있기를 바랍니다.

구역권찰회 회장 백 성 통

해외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구역장 노트 ㉔

사무행정 교육

백 성 통 목사

<부목사·구역권찰회장>

새해에 대비하여 이달 9일과 16일 양일에 걸쳐서 권사 및 구역장의 사무행정에 관한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제1일차 교육에서는 교우들이 등록하여 제적 혹은 복적할 때까지 제반 사무를 어떻게 집행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제2일차 교육에서는 각지구별로 나눠 받는 교육이 된 것이다.

제1일차 교육 내용

1. 교우가 등록 절차가 끝날 때까지~구역행정은 구역원이 생겨지는 데서부터 즉 등록에서 시작된다. 무슨 일이나 시작한 매우 중요하다. 등록 당시에 사무적으로 질서있게 잘 되면 후속되는 여러문제를 처리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권찰들은 등록지가 입수되는 대로 지체 없이 심방하여 주일에 등록공고를 하게 해야 한다. 등록심방에서 주소를 분명히 확인하고 걸들여서 약도를 자세히 기록하도록 해야 한다.

어떤 이들은 몇년 전에 우리교회 다니다가 다시 등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때는 복적수속을 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 점에 유의(문의해서) 이중 카아드를 작성하지 않게 되어야 한다.

2. 구역 카아드 보유~일단 등록되면 사무실에서 교적카아드 심방카아드 구역카아드 등 3종의 카아드가 작성된다.

구역카아드는 2부가 작성되어 구역장 앞으로 배부되는데 구역장은 그중 1부를 권사나 권찰에게 주어서 심방할 때 참고하도록 하게 한다. 구역용 카아드에 기재된 내용은 2부가 다 꼭 같아야 하므로 구역장은 수시 카아드를 회수·대조해 보고 또 사무실의 보존되어 있는 것과도 맞추어 보아야 한다.

주소란은 소문자로 계속 이어쓰고 약도는 연필로 그리도록 한다. 교회 출석자나 미출석자를 막론하고 카아드에 다 기재하되 출석자는 이름란 밖에 연필로 「O」표를 한다.

3. 구비서류~(1) 구역카아드 (2) 신급별명부 (3) 구역집회일지 (4) 출생자명부 (5) 별세자명부 (6) 월말보고서철 (7) 주제대상자명부 (8) 노인심방대상자명부 (9) 기타잡철 등이다.

4. 제적과 복적~(1) 1년 이상 교회에 출석 안한 사람은 제적된다. 현저해 배교라고 실종이 가는 자는 1년이 못되었어도 제적될 수 있다. (2) 무단전출 및 실종자에 관한 처리는 교회에 회보하여 찾도록 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타교회로 전출되었거나 실종이 확인되면 제적하게 된다. (3) 복적자는 등록카아드(소정양식)를 사용하되 등록을 「복적」으로 고칠 것이며 여백에 ① 처음 등록한 때 ② 교회를 떠난 때 ③ 교회를 떠난 이유 ④ 교회를 떠난 당시의 주소나 구역, 혹은 교우중 아는 사람의 이름 등을 기록하도록 지도할 것이다.

한 걸음 더 발전한 선교활동

- ...◇ 총원 성도들의 뜨겁고도 간절한 기도와 성원을 받으면서 현지에서 여건이 좋지 못◇...
 ...◇한 데서 선교사역에 임하는 우리의 선교사들 또 평신도선교사들은 1977년이 바야흐로◇...
 ...◇로 저무는 12월 중순을 맞으며 감사의 월례보고를 다음과 같이 전해 왔다. <편집자>◇...

인도네시아(서만수 선교사)

1. 1977년 추수감사절을 지난 11월 27일 임마누엘 교회당에서 본선교부 한인교회를 비롯하여 서부자바교단, 이사알마시교단 교인들과 5개 성가대 및 디사이폴즈 밴드의 동원으로 성대한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2. 지난 11월 26일 자카르타 신흥주택지 본복라부 개척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하고 성경책을 배부해 주었습니다.
3. 특별기도 청원이 있습니다. 매년 연장해 오던 외국인 체류 임시허가를 영주권으로 갱신청원하고 지금 수속중에 있습니다. 온 교회가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여년 이상 장기 체류자에게만 허락되는 이 영주권을 우리 선교부에 꼭 허락되기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홍콩(홍충만 선교사)

1. 우리 홍콩한인교회는 11월을 감사의 달로 정했는데 추수감사절은 11월 20일에 지냈습니다. 그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린 후 떡을 나누며 성도간에 친교의 잔치를 갖기도 하였습니다.
2. 홍콩한인교회는 교구 이리지역 이주민을 위한 구제금 2천불(20만원)을 기독교방종국으로 송금했으며 육군사관학교 수양비보 보조비로 1천불(10만원)을 김기태 목사님 앞으로 부쳤습니다.
3. 이번에 저희 교회는 불우한 지체 부자유 아동병원을 위한 자선바자회를 12월 1일 가졌습니다. 우리 한국인이 그곳 홍콩인을 위해 실시한 구호활동은 처음인 일로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한국인들과 중국인들까지 협조하는 중에 해당조 수입예산을 50~100만원 잡았는데 결과는 200만원 초과한 수익을 얻었으며, 이번 일로 한국 교포들과 더욱 유대가 깊어져 전도사업에 은연중 많은 유익이 될 것 같습니다.

서독(육호기 선교사)

1. O.M.F.선교회에서 "한국 기독교와 불교에 대하여" 증거하게 되어 있었으나 기회를 얻지 못해 원고만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박용삼 평신도선교사와 함께 우리말 찬송을 불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2. 교구 본교의 당회장 김창인 목사님이 서독에 오심에 따라 11월 13~15일까지 매일 60여명이 참석하는 중에 적 은혜로운 집회를 가졌습니다.
3. 추수감사연합예배 및 친교회 한미 합동으로 지난 11월 25일 카이제르슬라우벤에서 하이델베르크 한인교

회가 주최하여 참석하여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본교회에서는 11월 27일 추수감사절 예배를 감사와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이집트<애굽>(이연호 선교사)

1. 11월 13일 사하라 사막에서 한인교회 야외예배를 드렸는데 기록 필름 2통을 보내드립니다.
2. 당회장 김창인 목사님 11월 22~25일까지 카이로 체류하는 동안 총회 교단과 신학교 지도자회의 및 공관방문에 안내해 드렸습니다. 김목사님은 이곳 한인연합교회 성도를 위해 특별집회를 열고 귀한 말씀도 전해 주셨고 여러 곳을 방문하기도 하셨습니다. 이번에 세례자·입교자·학습문답자가 3명 있었습니다.
3. 선편으로 보내주신 성경·찬송가 각 20권과 교육자료책 11월 달일 무사히 찾아서 기렸습니다.
4. 같은 날(30일) 한국의 해양대학 원양훈련선 「한바다」호가 20여명의 교수와 기자 그리고 200명의 학생들이 카이로 근처인 알렉산드리아에 도착하여 이곳 전교인이 환영, 기독교학생들을 따르 맞이하여 예배드리며 격려했습니다.

일본(유병세 평신도선교사)

1. 11월 3일 아내 이운호 권사가 시내 축호전도를 위해 특별히 급식하고 나가서 150명에게 전도지를 주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2. 11월 15일에는 여가사 약 300km 되는 정내정이란 곳에 가서 교포 한 가정집 방문 전도했으며, 11월 18일에는 이권사가 일본인 부인 3명에게 성경을 가르치며 전도했습니다.
3. 11월 23일 유일을 이용, 의사 몇분을 만나 전도했는데 그중 대광혈정병원 조희중 선생이 결실하게 되었습니다. 24일에는 병원 대학원에서 특별 전도하고 외과 간호원 결신자에게 성경과 찬송을 주었습니다. 이날 이권사는 전도지 150매를 갖고 나가 축호전도를 실시했습니다.

아르헨티나(산동수 평신도선교사)

1. 얼마 전에 다시 이곳에 도착하여 11월 27일에는 여러 교회 학생연합회 헌설예배에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2. 선교회 본부가 보내준 성경·찬송가 각 50권을 77명에게 분배해 주었습니다.
3. 저같은 여러 교회의 연합집회를 위해 기도하며 준비중입니다.



브라질 1년 이민생활을 회고하면서

... “한국에서는 학생으로서의 의무만 졌지만 이민사회는...
...완전한 한명의 사회인으로서 져야 하는 책임과 의무는...
...한국과는 비교도 안될 만큼 큼니다” ...

1976년 11월 16일 화요일 김포공항 객실에서 출발에 배를 보고 슬렁이는 마음과 서먹한 기분, 착잡한 심정으로 부모님과 함께 친족, 친지 또 친구들의 눈물어린 축복의 배웅을 받으며 미지와 정열의 남미대륙을 향하여 떠나온 지도 어언간 1년이 지났습니다.

우선 중현동산의 6천여 양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김창인 목사님과 여러 목사님, 장로님, 제직원, 믿음의 가족 여러분께 지면을 통하여 인사드립니다. 또한 그간 영적, 물적으로 축복을 주셔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10월호 초두에 쓰여진 해외교우의 「월간 중현」에 참여를 기대하는 글을 읽고서 용기를 내어 펜을 들었습니다.

이민은 모든 사람의 과정이 그렇듯이 처음 2~3개월간은 이국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들떠 있어 뭐든지 새롭게 눈에 비치지만 점차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별것 아니로구나!”하는 생각이 들고 “공인히 집광고 땅팔아 이민왔어” 하며 후회합니다. 또 그리운 친구들의 편지나 월간 중현, 주보, 한국소식이 오면 눈물이 핑도는 모국에 대한 향수는 세월이 갈수록 더해만 가고 이것은 해외교포만이 느끼는 공통된 심정입니다.

더구나 저희는 파라과이 이민 케이스이기 때문에 1년이 된 지금까지도 영주권 취득을 못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에서 미성이나 수놓는 사람과는 달리, 하나님의 은혜로 이민온 저 6개월만에 페냐(penha)에서 가게를 시작했고 저와 동생들도 상파울로주립고등학교에 재입학했습니다.

한국에서는 학생으로서의 의무만 졌지만 이민사회는 완전한 한명의 사회인으로서 져야 하는 책임과 의무는 한국과는 비교도 안될 만큼 큼니다. 부모님이 브라질 어에 능숙하지 못하므로 은행관계, 수표거래, 세금문제, 상업문서, 각종 영수증 처리문제 일체와 대 브라질 사업의교활동을 자녀들이 맡아 처리합니다. 야간에 학교나가 공부하며 틈틈이 집안살림도 해야 합니다.

상파울로의 지대가 높아서인지 피곤한 생활에 지쳐서인지 몇개월간은 눈물과 코피가 뒤범벅이된 상태에서 체중은 4~5kg이 급감하고 어머니는 기후병과 심장병이 겹쳐 매일 누워 쉬고있었으며 한국에서 피땀 흘려 번 돈 까먹을 수 없다고 모터미싱 2대를 사서 아버지와 동생들이 밤 1~2시까지 밟고 있는 모습은 차마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1년동안 어머니의 건강이 이젠 완전히 브라질에 적응하게 되었고 가게장사도 잘되고 집에서는 모터미싱 2대와 수미싱 2대로 돈을 벌며 경제적 여유와 마음의 안정도 갖게 되었습니다. 또 이 상파울로에 있는 20여개의 교포교회 교인들은 크리스찬이 아

니라 단순히 조국에 대한 소식이나 외로움을 달래는 하나의 방편으로 교회 출석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아 문제를 안고 있는 교회가 허다합니다.

목사님 쫓아내기를 일삼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장로님과 집사님들간에 심각한 대립이 있고, 성수(聖守)주일이나 주초(酒草)문제는 아예 묵인하고, 주일 낮 예배 후에는 어떤 교회든 야외에배나가는 것을 보통으로 여기고 일부 교회들은 주일 아침부터 야외로 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교회 선택하는 문제로 부모님께서 고심하시던 끝에 당회장 김목사님의 후배이신 강위상 목사님께서 위임하고 계신 남미교회로 결정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경험의 영역이 좁아 체계있는 신앙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으나 이 이민사회에서는 생각지도 못했던 많은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신앙으로 이기며 20년 동안—유년부에서 대학부에 이르기까지—살전 꼴로 덕여 주신 중현의 교역자님들과 선배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조그만 일에도 말초신경이 예민하게 반응을 보이는 힘들고 피곤한 이민사회를 떠나 어디론지 타악 달려가면 그리운 약속동점과 견고한 과감의 우리교회가 나타나고 정든 서울의 골목골목에서 개구장이들이 장난치며 꿈에도 잊을 수 없는 선생님들과 친지 또 감격한 나의 친구들이 있을 것 같지만 시간적으로는 12시간이 늦고 공간적으로 지구의 반바퀴에 위치한 상파울로의 한 지붕 밑에서 이 글을 쓰고 있다는 것이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외롭고 쓸쓸한 이 시련의 밤을 견디어 내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을 확신하며 오늘도 지친 발걸음을 하나 하나 옮기며 가게로 향합니다.

그러면 머지 않은 장래에 환한 얼굴의 상봉을 기대하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중현동산에 항상 머물기를 기도드리며 글을 맺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고등부 6년간 전에 영적 생활에 커다란 감동과 영향을 주신 정관일 목사님과 대학부 1년간 젊은이가 안고 있는 신앙문제를 비롯하여 일반적인 광범위한 문제까지도 자상하게 지도해 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리며 월간중현의 발간을 위해 자나 깨나 고심하시는 편집위원님께 또한 감사드립니다.

상파울로에서
김 영 애 올림

주소 : Miss Young Aie Kim
Rua Mello Barreto
No 56 Bra's S.P. BRASIL

(편집자 붙임 : 집필에 양은 이민전 유년부 교사로 수고했으며 아버지는 김성국 집사 어머니는 최옥동 집사이다)

기쁘고 즐거운 우리 구주 나신 날!

축하 음악예배 · 성탄구제 등 갖가지 행사

-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소리 높여 찬양하며 즐거워하는 날, 기쁜...◇
- ◇...크리스마스! 이 날을 축하하기 위해 교회에서는 성가부와 전도회 · 구제부 그리고...◇
- ◇...주일학교 각부가 축하음악예배를 드리는 한편 교회내 가난한 이를 돌보아 구제하고...◇
- ◇...군에 위문편지와 위문품을 보내며, 병원 · 교도소 등을 찾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따...◇
- ◇...뜻한 구제의 손길을 편다. ...◇

성가부와 주일학교 각부에서는 단독으로 혹은 합동으로 축하음악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성성가대가 선두로 지난 주일(18일) 저녁에, 주교 유·초등부가 22일(수)에, 중·고등부가 24일(토)에 이미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축하음악예배를 드렸으며, 오늘 저녁은 제 1, 제2, 대학부가 합동으로 축하음악예배의 피날레를 장식하게 된다.

아울러 교회는 대내적인 구제사업을 위해 지난 16일 구역을 통해 성탄구제헌금을 거두었으며, 함께 작전도 회로 하여금 대외적인 행사에도 손을 펴 군부대와 병원이나 교도소 등에 크리스마스 위문을 노래와 각종 선물을 마련함으로써 성탄의 참뜻을 새기면서 이 복된 소식을 만백성에게 전하는 일을 실시하게 된다.

도서실, 독후감 입상자 발표

도서정리를 위해 대출은 중지

지난 11월 30일로 마감한 중헌도서실 주최 독후감

모집에는 총 18편이 응모되었는데 도서관에서 1차 예심을 거쳐 중헌출판위원회에서 재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입상자가 확정 · 시상되었다.

일반부/최우수작: 김연이(대학부 교사)

「끝없는 가능」을 읽고

가 작: 한정미(대학부)

「길은 여기에」를 읽고

가 작: 김원호(청년부)

「나는 너와 결혼하였다」를 읽고

학생부/최우수작: 성기주(중등부)

「어거스틴의 참회록」을 읽고

가 작: 김명섭(고등부)

「탈무드」를 읽고

한편, 도서관에서는 도서정리 관계로, 12월 한달 동안 책을 대출하지 않고 있다. 도서관에 아직도 반환하지 못한 책은 시급히 보내어 주도록 부탁하고 있는데 현재 도서관이 보유하고 있는 책은 앞서 520여권 동서 2,120여권 합해서 2,650여권으로 집계되고 있다.

당회장 김목사 귀국

지난 12월 17일(토)에

지난 9월 13일, 3개월여 예정으로 해외여행길에 올랐던 당회장 김창인 목사가 지난 12월 17일(토) 오전 전에 김포공항에 도착 귀국하였다. 김목사는 그간 미국→캐나다→서독→노르웨이→이집트(애굽)→미국→한국의 코오스로 열두 곳에 특별 부흥집회를 가졌으며 현지 보수교단의 지도자들, 선교기관·교육기관 지도자들과 생산적인 많은 회의를 갖는 등 바쁜 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돌아왔다.

한편 김목사의 귀국 보고강연회가 근간에 있을 예정이다.

성경학원 제3회 졸업

—12월 18일 주일저녁—

중헌성경학원 제3회 졸업식이 대예배실에서 12월 18일(주일) 저녁 예배 후에 있었다. 제1회 16명의 졸업생을, 제2회 10명의 졸업생을

낸 성경학원은 이번엔 3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는데, 이 성경학원은 평신도들의 순수한 성경연구와 고

육을 실시하는 일, 지도자양성부 운영, 주일학교 교사양성 등 우리교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1978년 단기수련회 일정표

구 분	날 짜	교 과 목	강 사
교역자수련회	1월 3-4	당회장 지침시달, 상담심리 공동번역에 대한 고찰	김창인 박성수 윤영탁
부 흥 회	5-7	말 씀	배순조
장로수련회	5(낮)	도시 교회의 장로직, 예배의 모범	김희보 김종택
평신도수련회	9-10	신자의 사회생활, 교회성장과 전도	정성구 정기성
제 직 수련회	12	구역운영	백성룡
직 원 수련회	6(낮)	직원의 봉사자세, 물품시설관리 인력관리	백성룡 윤종성 송준일
권사수련회	12	권사의 직무	김재창
성가부수련회	13-14	발성법, 교회음악사	윤학원 이귀지
교사수련회	13-14	78년도 목표방향,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 78년도 주교목표와 운영방침, 새성전 건축문제, 국내외전도문제 각부교육목표제시와 운영계획 설비도	김창인 정상우 김기정 최석주 최석주 각부지

각 전도회 총회 열어

남·여전도회, 산업전도회, 권사회
오늘 오후에는 해외복음선교회가

지난 12월 11일 주일 오후에는 남전도회가 본당에서 총회를 열고, 금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를 받고, 이어 임원선거에 들어가 제24대 회장에 윤종순 장로(현재 제직회 서무부장)를 세우고 부회장에는 신영대 집사(피택장로)를 뽑았다. 이어서 있는 산업전도회 총회에서 사업보고·결산보고를 받고 임원선거를 한 결과 제3대 회장에 김중식 장로가 재선되고 이원철 장로가 부회장으로 피선되었다. 같은 시간에 있는 권사회 총회에서는 이영주 권사가, 여전도회는 안윤진 권사가 각각 회장에 뽑혔다. 하였다.

한편 해외복음선교회(회장 위영환 장로)에서는 주일이며 크리스마스인 오늘 오후 매에배실에서 총회를 갖고 금년도 사업보고와 결산보고가 있은 후, 임원선거 없이 실행위원 4명만을 더 선출하고 1978년도에 대한 세부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확정짓는다. 새해 사업에는 선교주일과 별도로 선교대회 특별행사도 구상하고, 본부사업과 현지선교정책으로 구분하여 사무관리 강화, 선교연구 조직 분과활동의 강화 등 새로운 선교정책이 논의될 것으로 전해진다.

1977학년도 주교 수료·진급

—성탄절 오후에 실시—

성탄절인 오늘 오후에 주일학교 각부별로 1977학년도 수료 및 진급식이 실시된다. 이를 위하여 주교 각부는 그간 수료생을 위한 사정회를 열고, 연말종합성적을 내며, 학생 신상에 관한 각종 관계서류를 정리하는 등 학년말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이미 지난 12월 11일에 새해 주일학교 교사 임명이 끝나 있어 각부별로 새학년 준비도 함께 시들러 왔다. 주일학교 통수기관인 교육위원회는 학기말과 새학기에 원활한 학생 인수인계 및 학급편성을 위해 특별히 힘써 줄 것을 부탁하고 있다.

선교사들에게 위문품 보내

교회는 예년에 해온 한 행사로 금년도도 복음전선에서 크게 수고하는 선교사·평신도선교사들에 보낼 위문금과 위문품을 12월 11일까지 모집, 22만여원어치의 각 선교지에서 요긴히 쓸 물품을 구입하여 보내드렸다.

□ 주일 집회 및 헌금 통계 □

*1977.12.4 현재(매월 첫주 기준)

<집 회>					<헌 금>				
구	분	남	여	계		주	일	계	
예	주 일 낮	I	149	304	453	예	심	조	105,465
		II	342	813	1,155				242,660
		III	383	846	1,229				275,510
		IV	61	144	205				49,435
배	주 일 저녁	I	228	399	627	배	감	사	3,024,180
		II	108	294	398				489,900
		III							419,600
		IV							43,500
주	새 신 자	I	12	18	30	주	수	일	66,000
		II	20	62	82				2,675,531
		III	85	79	164				148,000
		IV	98	100	198				1,665,270
영	아 치 년	I	162	154	316	영	별	감	
		II	158	175	333				
		III	171	130	301				
		IV	156	150	306				
유	초 중 고	I	63	58	121	유	새	신	1,775
		II	66	67	133				21,480
		III	31	221	252				16,905
		IV	22	65	87				20,200
학	청 장 노	I	10	48	58	학	아	치	24,350
		II							27,990
		III							67,745
		IV							32,380
교	산 업	I	2,321	4,127	6,448	교	년	등	9,427,876
		II							
		III							
		IV							
계						2,321	4,127	6,448	

□ 신급별 교인통계 □

남/여

총세대수	교인총수	세 대 교 인	유 세	학 습	원 인
2,735	2,437/3,748	1,381/2,519	305/244	249/354	502/631

토 막 소 식

*...교회는 이리제해 구제를 위해 11월 25일(금) 각 구역을 통하여 구제금과 구제품을 모아 기독교 보사를 통해 보내주었다.

*...교회는 교회내 새해 일꾼들을 위한 수첩(주소록 등)을 예년과 같이 제작하며, 제직예비를 위해 역시 준비중이다.

*...주일학교 교사총회가 12월 30일 본당에서 갖고 각부로 흩어져 내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확정짓는다.

*...영아부는 12월 4일 제4학기 시험대신 총복습을 시켰다.

*...유치부는 12월 18일 4학기 성경시험을 치루고, 지난 달 25일에는 교사 철야기도회를 가졌다.

*...유년부는 4학기 성경시험을 12월 4일에 치루고, 18일에는 교사 송년기도회를 가졌다.

*...초등부 역시 4학기 성경시험이 12월 4일에 있었다.

*...유·초등부에서는 오늘(25일) 저녁「외딴집 아이들」(주배익 작, 이매진 지도)의 연극발표회를 유년부실에서 가진다.

*...중등부는 연합고사 준비기도회를 12월 18일에 가졌고 이어서 먼러희 정기총회가 있었으며, 24일에는 졸업생 환송회를 열어주었다.

*...고등부는 12월 24일 철야기도회를 가졌고, 졸업생 환송회가 지난 20일에 있었으며, 성가대찬무회를 12월 30일에 있다.

*...산업전도교육부는 먼러희 총회를 12월 4일 열었고, 송년기도회는 12월 31일에 있다.

*...대학부는 12월 23일 전방부대(모사단 포병사령부)를 위문차 다녀왔고, 지난 17일에는 졸업생 환송회를 가졌다.

*...청년부는 12월 18일 청년부실에서「시화전」을 가졌고, 전방전도위원을 12월 24일 진곡에 있는 모부대를 찾았다.

*...장년부는 12월 25일 성경 많이 읽는 사람에 다독상을 준다.

*...노년부는 하반기 시상을 12월 25일 실시한다.

*...수도노회주교연합회의 성경고사대회 및 성가경연대회가 12월 26일 성도교회에서 있어 본교회에서도 참가한다.

기 자 석

○...눈만 감으면 코베어 간다는 말에도 놀랐던 우리의 심장이, 즐거와 일을 잃어버린 채 새끼줄로 뿔뿔 끊어 가르수에 늘어선 플라타너스(platanus)와도 같이 두껍게 되어 버린 이제, 눈뜨고 코베어 간다는 설깃한 말에도 놀라는 기색없이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 우리의 입에도 서슴없이 담겨지고 있다. 이렇듯 우리의 청각도 후각 못지 않게 예민하면서도 저음과 끝이 상대적이다. 신문 지상에 기재된 강도사건, 유괴사건 등 많은 사건들도 나에게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모두가 관심 밖이다. "그 경우라면 그럴 수도 있겠지"라는 긍정적인 태도로 변해가고 있다.

○...연젠가 버스 속에서 일어난 일이다. 습관적으로 갖고 다니는 작은 책자(冊子) 한 권을 가방 속에서 꺼내 들었다. 덜컥거리는 소리 외에도 많은 소음으로 집중되거란 어려웠지만 목적지까지의 시간이 너무 길기에 책의 내용을 생각하며 열심히 읽고 있었다. 몇 분이 지났을까? 하얀 종이쪽지가 읽고 있던 책 위로 앞전히 뒤밀어지기에 무심히 읽어보니 도움을 요청하는 고학성의 호소였다. 막한 생각이 들어 호주머니에 손을 넣고 그 학생이 오기를 기다렸다. 내 앞으로 다가선 학생의 손에는 껌이 쥐어 있었다. 돈을 꺼내려는 모습을 취하는데 "어머, 선생님?" 두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굳어져버린 학생을 바라보는 순간 나 역시 아연실색하고 말았다. 며칠 전부터 결석하고 있는 나의 제자였다. 열열결에 그의 손을 잡고 버스에서 내려 조용한 곳을 찾아 들어가니 그는 울고 있었다. 그의 아픈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한참동안 이런 저런 얘기를 하며 눈물 그치기를 기다렸다. 생활고를 이기지 못한 부모의 생각없는 가혹이 고아를 만들어 버렸기에 동생들의 끼니를 위해 이렇게라도 벌어야만 된다는 절박한 사연이었지만 나의 뺨에도 무언가 흐르고 있었다. "불쌍한 것들..." 그날 이후 나의 머리 속에는 눈물로 뒤범벅되어 얼룩져버린 그의 모습이 생생하게 또렷하게 나타나곤 했었다.

○...만약 주님이 나를 버리신다면 그와 같은 불쌍한 고아가 될 것만 같아 기도 안하고 성경 제대로 못보는 내 생활이 두렵기까지 했다. 주님의 자녀인 우리는 좀 더 부지런하여 많은 시간 속에서 주님을 찾아야 한다. 날 위해 피흘리신 모습과 부활하여 승천하신 모습 속에서 주님과 나만의 애뜻한 사랑이 이어져야 된다.

○...월간충현 편집일이 경사(慶事)가 겹쳐진다고들 한다. 앞으로 월간충현을 지도해 주실 목사님이 오셨으니 좋고, 편집국장 겸사님이 지난 달에는 장로장립식을 갖는 뜻깊은 일도 있었으며, 성탄절 며칠 앞두고는 세 등교가 작을 찾아 결혼식을 갖는다. 아닌게 아니라 축하해 줄 일, 기쁜 일들이 이곳에 물려 있는 듯하다. 하나님 앞에 큰 감사를 드리자.

○...1977년도 마지막 호를 마무리지으며 잠깐 돌아보니 감개가 깊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었을 것인가. 마음은 앞서도 따르지 못하는 절적인 향상예의 어려움, 게다가 인쇄되어 나오면 교정 실수등 몇 군데 틀린 메가 꼭 발견되고, 결국 인간이란 별수없는 불완전한 존재라는 걸 피부로 느끼게 된다. 주여!...

<김>

표지설명

성경 누가복음 2장 1-20절까지를 읽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자세한 사연이 나타난다. 요셉은 그의 정혼한, 성령으로 임대되어 해산이 임박한 그 마리아와 함께 베들레헴에 이른다. 그 여인을 통하여 오신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 아기 예수님은 도저히 사관(객실)에 응납함을 받지 못한다. 세상의 사관에 성탄의 장소는 없다. 우리 각자는 구주를 영접할 자세가 되어 있는가.

국내의 독자 여러분께

지난 1972년부터 발행되어 온 월간충현은 그동안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여러분의 끊임없는 격려 가운데 크게 자랄 수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개교회에서 발행되는 미약한 것이지만 문서를 통한 복음전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그 동안 국내외 여러 교회와 기관에 배포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항상 궁급한 것은 여러분이 매달 딱집없이 잘 받아 보고 있는지의 여부였습니다. 그래서 연말을 기해 1978년 독자주소록도 새로 만들겸 이를 확인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1978년 1월 15일까지 꼭 회신을 바랍니다.

<보내 곳/충현교회내 월간충현 집편실>

월간충현은

언제나 여러분의
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월간충현에서는 충현교회 식구들의 신앙간증이나 수필·시 또는 성도의 교제나 교회 발전을 위한 제언 등 200자 원고용지 7매나 14매 정도로 써 보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1677년 월간충현 조직 □

위원장/송순일	정성우	정관일
위 원/조현명	이두란	윤형철
	조선근	김차생
	이정용	손명순
간 사/정은표	이형수	오태용
기 자/고재원	성주진	정운명
	유미숙	안영자
		김인숙
		홍지향

월 충 현 간

12월호 통권 제48호

1972년 4월 30일 창간

1977년 12월 25일 발행

발행인/김 창 인

편집인/송 순 일

주 간/정 관 일

편집국장/조 선 근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100-서울 중구 충무로 5가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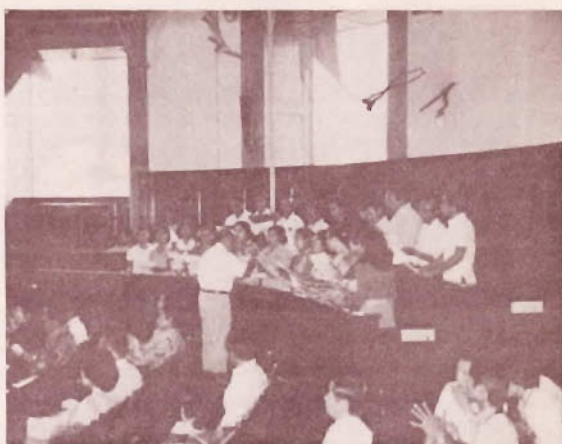
27-9937-9738

29-7726(편집실)

❁ 사진으로 보는 이모저모 ❁



◇ 여전도회가 개척한 시내 개봉동에 위치한 성현교회 (이종영목사시무) 예배당 준공예배가 며칠 전 드려졌다.



◇ 서만수 선교사가 주재하는 인도네시아 한인교회는 여러 교회가 연합하여 추수감사절 음악예배를 드렸다고 한다.



◇ 청년부 특강시간에 대한예수교장로회신학교 라보도 박사가 윤영탁교수의 통역으로 열띤 강의를 하고있다.



◇ 이집트(애급)에 파송된 선교사 이연호 목사가 오랜만에 가족을 만나 야외예배때 가족사진을 찍었다. 뒤에는 피라밋과 �핑크스.



◇ 지난 11월 20일 추수감사절에 산업전도교육부는 오후에 따로 특별 프로그램을 가지고 감사절행사를 하였다.



◇ 고등부는 추수감사절행사의 하나로 면려회 주최로 성극 발표회를 가져 정중들의 뜨거운 갈채를 받았다.



실로암 못가에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인자와 성실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늘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낮은 종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해외에 나가 있는, 군에 있는,
 지방에 있는, 모든 곳에 있는
 총현의 모든 식구들이
 「다 경배하자 주님께」의 찬송으로
 고요하고 거룩한 밤에 나신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 현 교 회